경남청년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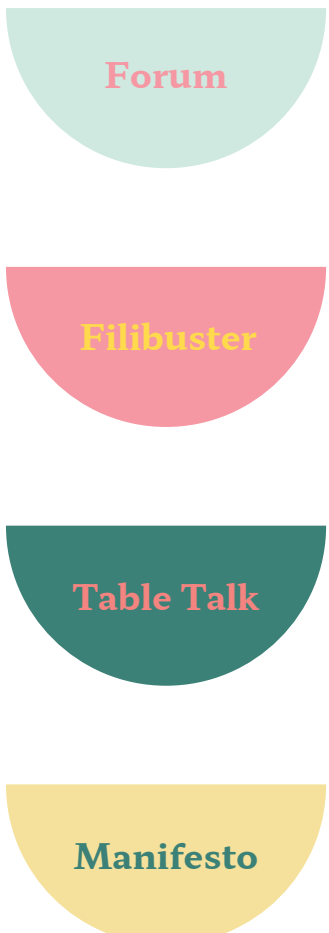
공론의 장

지역청년을 말하다

경상남도 GYEONGNAM

신촌문화정치 연구그룹

경남청년주간 공론의 장



목차

행사취지 및 문제의식 04

지역청년포럼 06

발제문 권수빈 권명아 곽영신 양승훈

파라-텍스트 37

지역청년필리버스터 44

발언내용 이주열 박홍열 안태형 조인우 정수진
최영철 김빈아 김영철 심아준 박서재 강보배
김다정 최종환 김설 김민성 천현우 박혜민 서난이

지역청년테이블토크 142

지역청년선언문 146

행사취지 및 문제의식

경남청년공론의장은 '지역청년' 내지는 '지방청년'에 대한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포럼, 필리버스터, 테이블토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지역청년을 다루는 담론의 양적인 부족함, 그리고 질적인 뭉툭함을 비판합니다. 지역청년포럼과 지역청년테이블토크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역청년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이들의 문제의식을 아카이빙하여 널리 발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히 문제를 느끼고 있는 '지역청년/지방청년' 담론의 한계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논의되는 '청년' 담론은 서울, 수도권 중심입니다. KBS <질문하는 기자들 Q> 13회에서 청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는데, 청년 취재원의 71%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 이같이 중앙의 청년담론에는 지역청년의 위치성과 목소리가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청년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 '지방청년'은 언제나 '서울청년'과의 이분법적 의미 체계 내에서, 즉 '서울청년'의 비교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타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년'은 '지잡대'와 같은 비하와 멸시의 언어와 밀접하게 재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청년'은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체화한 채로 '지방청년'에 대해 말합니다.
- <복학왕의 사회학>은 '지방청년'에 대한 유력한 담론입니다. 이 책은 지역 청년에 대한 일말의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청년에 대한 앞서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지역청년을 담론적으로 동형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더 다종다양한 지역청년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지방청년' 담론이 지방의 인구 문제 내지는 '지방소멸' 논의의 하위범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청년' 담론은 청년의 정주의식 강화, 인구 유출 방지, 유입 촉진 등의 의미망과 연결됩니다. 지역에서 태어났고, 지역에서 자라 생활하고 있는 청년은 오히려 담론과 정책의 초점에서 밀려납니다.
- '지방청년' 담론은 지역에서의 청년 삶의 어려움,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이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이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청년포럼

Forum

지역청년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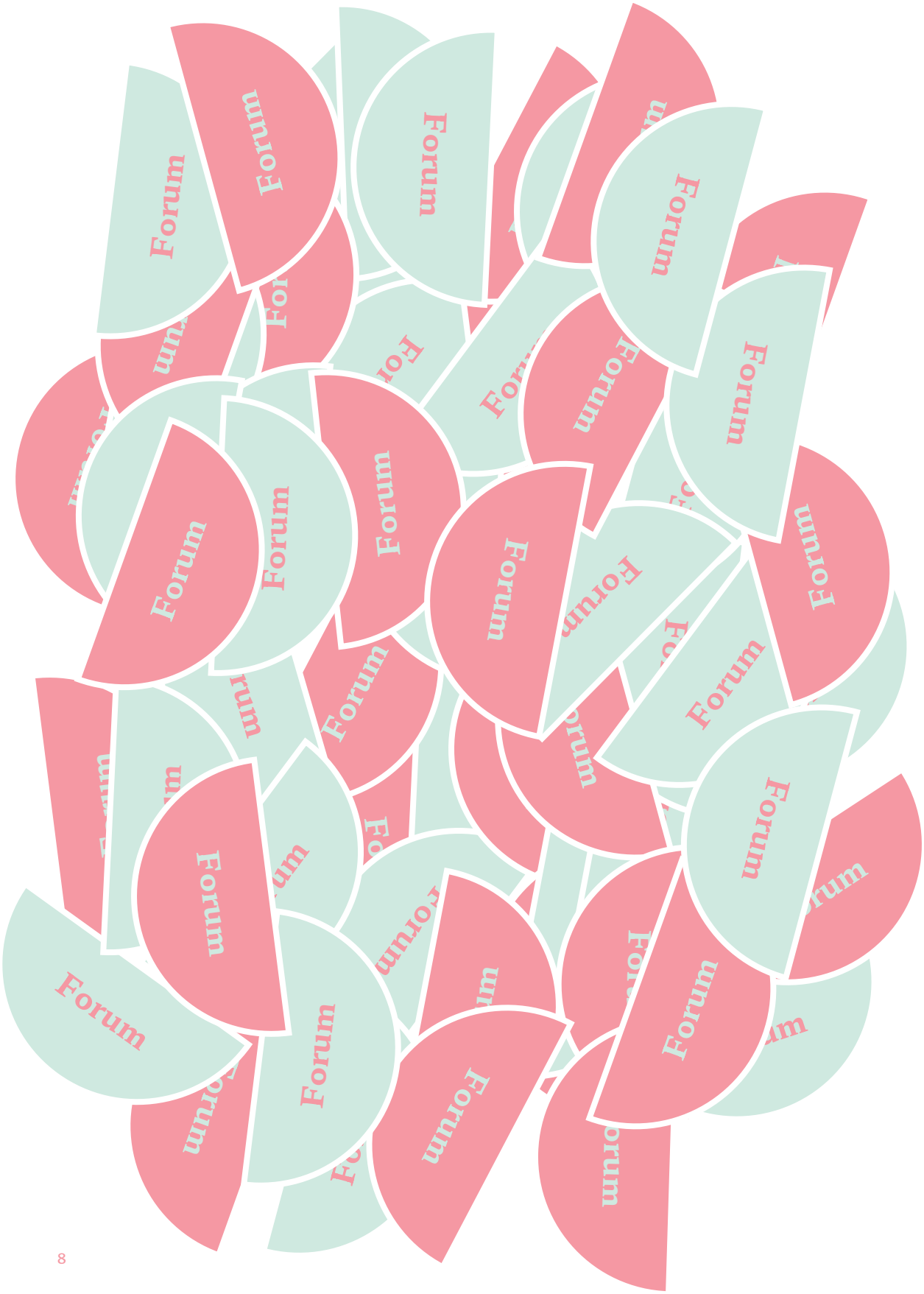
"지역청년을 다시 말한다"

지역청년은 왜 말해지지 않는가?
논의의 대상으로 소환되는 순간에는, 왜 언제나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정책 전반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지역'과 '청년'이 만나는 여러 위치들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 왔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청년을 다시 말함으로써, 대안적인 담론과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 12시 40분
경남도청 대회의실, Youtube

Forum

사회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패널 권수빈 안동대 연구교수
패널 권명아 동아대 교수
패널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
패널 양승훈 경남대 교수


Forum

지방청년이 말할 수 있을 때

권수빈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글의 많은 부분이 이것저것 삭제되고 교정교열되면서,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데요.
제 스스로의 정의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어떤 지방청년이 되기를
요청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위의 글은 최근 민음사 인문잡지『한편』6호에 실린「지방청년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쓰는 도중에, 편집자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다. '이건 내 글도, 나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편집자의 두 가지 요청에 기인한다. 첫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지방청년의 말을 인용해달라는 것. 그가 요청한 것은 이것이다. "『복학왕의 사회학』에서 인터뷰와 해석이 어긋나는 장면, 수도권-기성세대-교수로부터의 재현을 내면화한 지방청년의 이야기, 지방청년으로서 내가 해본 자문화기술의 사례." 나는 장면, 이야기, 기술을 넣으라는 편집자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다. 누군가의 말을 가져와 설명하는 일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고착화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청년으로서 무엇을 말하라는 것. 예컨대, "나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로부터 우짖는 소리를 발화하는 지방-여성-청년-연구자다."라는 문장을 쓰라는 것이다. 내 위치와 태도의 면에서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은 이 문장이 편집자로부터 쓰여져 왔을 때 나는 거부감이 들었다. "내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라는 관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읽힐까 염려되었다. 나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두 요소에 걸맞은 글쓰기를 요청했다.

이 문제는 내가 지방청년에 관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경계하는 재현과 당사자성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 즉, '말'이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이라는 것이 문제다. 지역청년필리버스터는 이어 말하고자 하고, 지역청년포럼은 지역청년을 다시 말하고 있다. 그 목적은 지역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늘 이곳에서는 지방청년과 관련된 선언, 발언, 발표, 공론, 목소리와 같은 말들이 뒤섞이게 될 것이다. 패널로 온 나 역시 '지방청년이 말할 수 있을 때'를 제목으로 삼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말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지역청년 연구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특정한 말이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지

말자.' 다시 말해,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양 말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전 아직 그런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것 같고 노력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도전을 해도 실패가 보이는 것 같아요."(최종렬, 2018: 62)라는 말을 가져와 지방청년은 도전할 의지가 없고 경쟁하지 않으며 뭐든 적당히 하는 적당주의 습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지방청년이 경험하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의 현실을 적확하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지방청년의 재현으로 오래 살아남아 오역될 가능성은 언제고 도사리고 있기에 내겐 지방청년의 말은 약이자 독, 즉 '파르마콘(pharmakon)'이었다. 무언가 사례를 보여주며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겠지만, 그렇기에 '지방청년의 것'처럼 손쉽게 등치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재현이란 늘 그 대상과 닮아있지만 분명하게 구성된 결과다. 있는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조작이나 구성에 가깝다. 지방청년의 삶에 열등감이나 좌절감, 불안과 같은 정서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차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구성된 재현에 가깝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방청년을 말해온 학술적 담론들이 취하고 있거나, 그 기저에 깔린 문법 때문이다. 나는 처음 청년연구를 시작하고 지방청년 담론이 어떤 내용을 갖든,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후 연구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청년을 다루려는 방식, 예컨대 재현의 스타일이나 비유적인 표현, 배경 서사와 장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읽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더 나아가 지방청년의 목소리를 활용해 특정 재현을 덧씌우려는 시도들이 학술 장에서 공공연하게, 의심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느꼈다. 지방청년이 당면한 적확한 종속과 억압의 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집단화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며 집단을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봤다. 또한 이렇게 제공된 맥락은 지방청년을 이해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으로 권위를 가지게 된다. 굳이 꼽지 않아도, 몇몇 연구가 지방청년연구하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이 상황을 상기해보면 쉽다. 타자를 재현한다는 것은 타자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동시에 타자를 대변, 대표하는 이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침묵하거나 부재하는 타자의 복원이 아니라 타자를 재현하는 주체의 입지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이경원, 2011: 484).

나는 이러한 상황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가 쓴 오리엔탈리즘 내러티브가 국부적인 차원에서 원용될 가능성을 남겨둔다고 보고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기 위해 가브리엘 피터버그(Gabriel Piterberg)가 제안한 내부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읽어내고자 했다(권수빈, 2020). 동양에 대해 취해진 '주도면밀한' 담론들은 한 국가 내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사회 지방의 문제에 대입해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방청년에 관해서 말이다.

학문적 의미와 상상적 의미의 계속적인 교류 속에서 지방청년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려는 담론이 생겨나고 있다. 이 담론 자장 안에서 지방청년에 관한 지식을 재생산하는 이들은 하위주체로서 지방청년을 인식하며, 그들과 다른 자기만의 위치설정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연구자들은 자신이 수도권 출신인지 지방 출신인지 교수인지 강사인지, 지방대를 나왔는지 등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사이드 식으로 읽자면 전략적인 위치설정으로,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쓰는 모든 사람은 그것과 대치되는 곳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Said, 2007: 49). 위치에 따라 선택되는 언어의 종류나 저자가 구축하는 권위의 유형, 반복해 등장하는 이미지와 테마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체해 마침내 지방청년을 밀봉하고 표상하며 대신하는 교묘한 방법이 된다(49).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담론과 제도 속에 나타남으로써 힘과 권위를 확보한다(50). 이는 학술적으로 인용되며 인증되고 지속적으로 증식한다. 나는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권수빈, 2020).

문제는 여기서 생겨난 지방청년에 관한 서술이 완전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재현으로부터 사실을 구분해 지방청년이 직면한 현실의 본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과 실제 동양이 어느 정도로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리즘이란 것이 그 자체의 구조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가라는 점에 있다고 봤다(Said, 2007: 22). 그러니까 그가 지적하듯 지방청년에 관한 특정한 말은 '단순한 거짓말 모음 이상으로 강력한 어떤 것'(24)이다. 때문에 피터버그가 내부 오리엔탈리즘을 주장하며 말한 것 역시 이집트인,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인, 터키인 각각의 상세한 경우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기저에 깔린 문법과 역사 교과서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복수의 기억이나 경험, 정체성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없애는지에 대한 것이었다(Piterberg, 1996).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하는 듯"(Said, 2007) 온갖 재현이 대상을 대변하고자 나섰다. 재현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 그러나 조작은 은폐되고 재현이 대상의 본래 특질인 양 구성된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재현을 통해 생겨난다. 재현은 개별적 주체들의 삶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부여된 스테레오타입대로만 통용되도록 만들기에, 그 개별적 주체가 얼마나 또 어떻게 대상화, 타자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내가 줄곧 매달린게 지방청년에 관한 재현이었던 것이다.

혹자는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는 사실, 지방청년 앞에 놓인 불공정한 구조와 혐오, 차별, 종속, 억압,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럼에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청년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가 통계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재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의문시되어야 하는 지방청년이라는 단어의 모호함과 재현의 단순함이 지방청년의 삶을 강력하고 쥐고 흔들기에 재현을 문제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지방청년에 덧씌워진 인식을 찬찬히 비판의 과정을 통해 걷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역이 아니라 담론으로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담론에 탈식민주의적 시각을 대입해보고 비판하고 전유하는 틈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초점은 종속과 억압의 현실을 열거하는데 있지 않으며, 당사자로서 말하기를 시도해온갖 재현을 뒤짚어 엎으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지방청년의 삶과 재현을 구조화하는데 무엇이 작용하는가와 비판적 실천으로서 지적 작업의 경로 모색에 있다. 지방청년이라는 불가지적인 대상을 가늠하고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시 논의하게 만들기 위해, 또한 그 과정에서 재현을 뒤흔들고 타격하기 위해 지방청년 연구의 문제설정을 재현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고 재현의 권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장에서 연구자이자 당사자로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주변화된 삶에서의 해방적 실천, 그리고 그와 분리될 수 없는 비판적인 지적 작업의 필요를 말한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이자 이론가인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처럼, 나를 그들에서부터 떼어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팎의 모순된 삶을 드러내는 지적 작업이 내 일이라고 여겼다.

말의 문제로 돌아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던진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곱씹어보면 이는 재현을 둘러싼 인식론적 불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다.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스피박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단지 말할 수 없음이 아니라, 말이 읽어질 수 없음, 말의 지워짐, 즉 말의 실패다. 하위주체들의 음성은 흩어지고 깨져 주워 담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으며 어찌 지식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 스피박은 재현불가능성을 언급하며 섣부르게 서발턴의 주체화를 판단하는 이론가들의 과오를 지적한다. 재현은 배제되고 사라진 존재, 흔적이 없어 존재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누락과 소외를 주목하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존재의 누락을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위험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그들을 주체로 재현하려는 과정 자체가 동시에 부지불식간에 대상화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란 언제나 재현되는 주체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치 주

체의 목소리와 같은 것, 주체-효과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재현 주체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들의 말 없음에 우리가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Spivak, 2013: 137).

나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또 "정말로 말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덧붙이고 싶다.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 없음, 말의 실패와 아울러 그들을 말할 수 없는 자로 전제하는 문제가 상존해있기 때문이다. 즉 하위주체의 재현의 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실제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하위주체의 정치적 연대에 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불가능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김정하, 2006: 16). '말할 수 있는가'라는 성찰적 질문이 던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만, 말의 문제란 다시 논의해야만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말을 빼앗겨 말을 할 수 없는 자, 침묵을 강요당한 최하 계층에 있는 자,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자들로 소리를 내지만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는 언어권 밖에 존재하는 자인 하위주체들은, 동시에 "일종의 위반의 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말하는 존재자라는 것, 곧 단순히 욕구와 고통, 두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명시하는 말을 지닌 말하는 존재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몸뚱이의 삶을 단어들 및 단어들의 용법과 연결하는 일련의 언어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Ranciere, 2015: 5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에 매달린다. 말하기란 단지 그것이 언어가 되느냐 담론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걸린 사건'(천정환, 2011: 247)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하거나 제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은 주어진 자리와 몫에 대해 부단히 불화하는 것이고, 연구자인 내 일은 그 말을 수집해 적절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는 그대로 말하는 일이다.

다시 편집자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내 연구 과정은 지방청년 재현에 관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와 수치 같은 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앞서 존재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의미에 의해 나 자신이 결정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Fanon, 2013). 계속해서 내가 특정 지방청년으로 호명되고 나 스스로 그런 위험을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태여 여기에 앉은 이유와 동시에 오늘 이 포럼에서 연구자로서 지방청년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이거나 분석적인 논의 대신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재현과 당사자성의 문제가 내 삶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편집자는 오히려 저 메일의 일부를 책에 싣자고 말했다. 자기 삶의 모순에 직면하는 자문화기술자라면 내 문장들을 옮겨 적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나 자신을 숨기지 않길 요구받은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당황했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문장들은 나의 상황, 감정, 상태, 위치, 고민, 모순을 가감 없이 보

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인용한 메일의 글은 지방청년-연구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나의 바로 지금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방청년으로서 내 삶은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소속과 위치가 바뀌는 과정 중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결국 편집자를 향했던 나의 말은 지방청년-연구자인 나의 고백이었고, 언제가 되었든 자문화기술지에 남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자문화기술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지방청년으로서 나의 삶을 말하는 일이 당사자성을 무기로 삼는 일과는 명백히 달라야 할 것이다. 나는 당사자의 삶을 마치 재현 바깥에 있는 진정한 경험인 듯이 경험 자체를 특권화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한다(Hall, 2005). 우리 삶 바깥의 재현을 문제 삼는 우리 자신 역시도 재현 위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기에, 진짜 삶이나 진정한 정체성 따위는 성립불가능한 것이며 당사자 역시도 재현의 정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지식을 투명한 객관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에 맞서 당사자 삶의 우위성만을 앞세우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체성 정치 역시 정체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체를 전제하는 본질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 난제 속에서, 정체성 정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정체성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내적 차이를 간과하고 차이를 토대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또 다른 경계짓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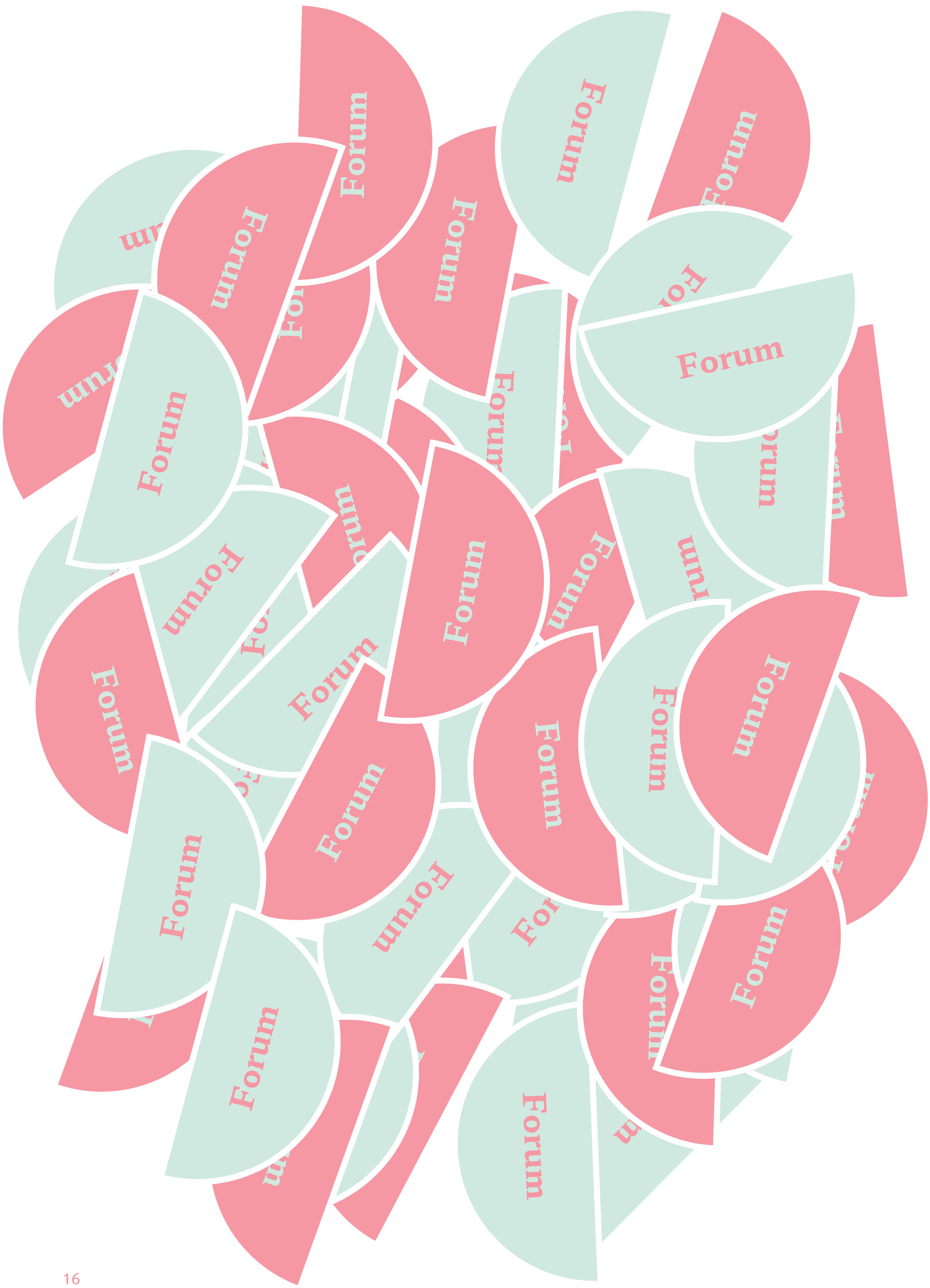
정체성 정치가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본질주의(strategic essentialism)는 단일하고 통합된 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치 그런 집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자는 것이다(Spivak, 2006: 17). 그러나 여기에는 취약성이 존재한다. 전략적 본질주의 없이는 재현에 개입하고 약간이나마 공간을 쟁취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또한 분명하게 "과연 그러한 계기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있는가, 여전히 새로운 개입 전략에 충분한 토대가 되는가?"라는 난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요청된다(Hall, 2015: 562). 나는 이 요청에 응하는 일은, 공고해질 수 있는 정체성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존재 자체가 틈새임을, 나를 내던짐으로써 그 어떤 경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경계 자체임을 고백하는 일이라 지금은 생각한다.

온갖 재현과 당사자성, 정체성 정치의 위험 속에서 여전히 나는 우리의 말을 긍정한다. 주변적이고 소수적인 시각 또한 비판적 검토와 의심, 해석의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입장보다 상황적 객관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며, 즉 그것이 근본적으로 세계에 대해 더 적절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객관적이며 더 변혁적인 설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김용규, 2013: 85).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방청년이 말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파편으로서의 말들이 수집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선언에서 고백으로의 이행이다. 문제를 진단하고 목소리를 모으며 무언가를 전유하고자 실천이라는 점에서 문서인 동시에 선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선언은 공표될 것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선언하는 그 순간은, 분명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때론 누군가가 진입할 수 없는 문턱이 될 여지를 남긴다. 우리 사이에 남게 될 많은 선언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움직임으로 무엇을 바꾸며 어떤 경로의 궤적을 남기게 될까?

하지만
무언가를 선언하는
그 순간은,
분명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때론 누군가가
진입할 수 없는
문턱이 될 여지를 남긴다.

나는 오히려 불가능한 선언이 아니라 차라리 고백으로서 그 불가능을 말할 때, 고백으로부터 인정을 경유한 연결의 실마리를 새롭게 이어낼 때 다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청년을 말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의 불가능과 계속된 실패 속에서, 동시에 일종의 자격으로서 말이 여겨지는 지금 이 때의 원리와 결별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나 자신의 말조차 정체성을 묶어 동질화하는 위험 속에 있다는 위기 위에서, 모든 다른 말들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지방청년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스스로를 찌를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또 무언가를 말하고자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이유 역시 그렇다.


Forum

‘소멸 위기’라는 정동 정치에 대항하기: 경남청년공론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체의 발명에 부쳐

권명아 동아대 교수

1. 고등교육 개혁, 라벨링의 증오정치와 젠더 정치 :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차별적 패러다임

공정, 신자유주의, 이십대.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세가지 키워드로 수렴된다.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이 단순성이 아마 치안(policing)의 방법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 지방대 논의가 모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두 키워드로 환원될 수 있었던 걸 반추해봐도 이 단순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대학개혁과 관련한 행위 주체들, 관련 요인들은 다양하고 그 복잡성을 단순화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모호한 것은 아니다. 증오정치(한국에서는 혐오 논의로 환원된)에 대한 분석, 행위 주체와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복잡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역시 책임 주체가 모호하지 않다.[1]

본 발표자는 정동 정치 연구에 있어서 행위 주체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했다. 특히 증오정치의 행위 주체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온라인 미디어, 신세대를 책임 주체로 지

1 증오정치와 이른바 ‘혐오 감정’의 확산에 있어서 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헤이트스피치와 책임성 관련 논쟁과 논의에서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레나타 살레츨과 주디스 버틀러의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버틀러는 헤이트스피치를 유형화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1980년대 후반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언어의 수행적 효과와 담화상황의 맥락성을 강조했다. 헤이트스피치는 차별이 만들어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과 그 언어적 상관물인 담화집성체(corpus)를 ‘개인’ 발화 주체가 인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이란 ‘개인’이라는 주체를 상정하는 것인데 언어 수행성에서 발화에 관련되는 행위 주체들은 복수적(코르푸스와 발화 주체의 상호매개성)이고 법적 주체인 ‘개인’ 범주와 상응하지 않는다. 버틀러가 헤이트스피치 논쟁에서 언어 수행성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주체의 다수성과 법적 주체라는 근대적 개인성(홀로주체)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레나타 살레츨은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긍정하면서도 버틀러가 발화 주체를 ‘인용’ 주체로 환원하는 점을 비판한다. 살레츨은 인용 주체와 담화코르푸스의 상호매개성을 인정하지만 버틀러의 논의가 발화 주체를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 책임 주체의 자리에서 면제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언어 수행성의 차원에서도 발화 행위를 수동적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살레츨은 발화 주체라는 하나의 인격적 주체의 행위를 인용 행위이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법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 연구」, 『역사문제연구』 2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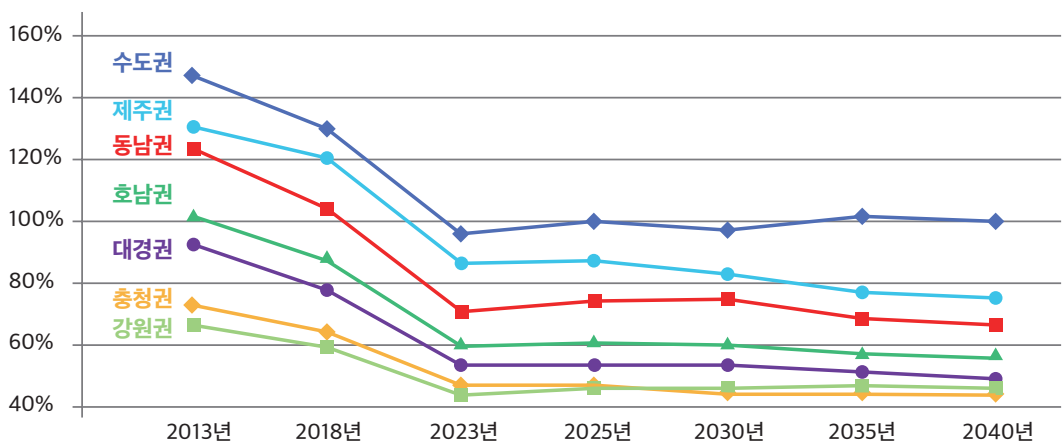
증오정치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젠더어펙트 연구는 그런 점에서 근대적인 개인 주체로 환원할 수 없는 주체의 연결성, 다수성, 행위주체성, 행위 주체의 인격성과 비인격성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정동 연구에서 정동적 힘의 비인칭성 역시 이러한 재규정과 해석의 흐름 속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석당논총』 77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5-38쪽.

목하는 방식을 비판해왔다. 물론 이 행위 주체의 책임성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다. 증오 정치는 다중의 자발성을 동원하는 치안 형태라는 점에서 치안의 주체와 책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대학개혁'과 '지방소멸'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방, 지방대, '청년'을 '문제집단'으로 낙인찍는 증오정치의 원천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차별 주체화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 개혁과 지방 소멸 담론은 정부 조직을 통한 담론 구성, 대기업과의 연합 작전, 미디어의 매개, '대중적 확산', 기정 사실화, 관련 '전문가 그룹'의 반복적 담론 형성 등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증오정치를 '정책'과 '지식'으로 정착시켰다.

'문송합니다',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특성화'와 같이 현재 거의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담론소와 의미 맥락은 사실상 2014년 본격화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고등교육 개혁 정책'에서 형성되었다. 2013년 고등교육 개혁을

〈 2013년 이후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율 전망 〉



출처 : 배상훈 외(2012),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

2 <2014년 지방대 특성화 계획>, 교육부, 2014년 2월.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책 추진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은 첫째, 산업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를 위해 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셋째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차별화해서 특성화한다.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 고등교육 개혁은 수도권과 지방대에 대한 전혀 다른 기조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을 국가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 특성화'는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경쟁력 심화 과정 의미"한다.[4] 반면 지방대의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로 '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4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수준 미충원 추산"되는데 대비한 특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지방대 특성화 계획에 지금은 '진리'처럼 회자되는 2023년 지방대 멸망설의 근거인 학령인구 감소 그래프가 등장했다.

또한 산업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을 기치로 대학과 기업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른바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산학협력과 정부의 강제적 대학 구조조정('체질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대학에 전가하였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 뒤 해당기업에 입사시키는 산학연계 채용과정 (예시 : LG전자-경북대·부산대, '12~)

○ 특히,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하는 인력수요 분야와 규모를 결정하면 주변대학이 이에 맞추어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8월 중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기업-지자체-대학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

2013년 이후로 청년 실업은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급변해서 오늘에 이른다. 첫째는 대졸 취업자의 미취업률 증가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청년인턴제 등)이다. 2014년 고등교육 개혁의 정책 기조는 청년 실업의 이러한 두가지 패턴을 급격하게 강화하면서 정당화하고, 대기업에게 요구될 고용 책임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대신 경쟁력없는 대학 퇴출의 명분 아래 지방대를 비롯한 대학에 '취업 책임'이 전폭적으로 전가

3 <2014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계획>, 교육부, 2014.
4 <2014년 지방대 특성화 계획>, 교육부, 2014년 2월.
5 「교육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교육개혁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 계획」 경제장관회의(8.12) 상정-」, 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8월.

되었다. 대학 구조 개혁 지표인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고용없는 성장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고요책임)을 거부하는 대기업에 책임을 면한 대신 주어진 것이다. 한편 대학 평가에서 충원률은 특히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충원, 지방소멸이라는 수사적 전략을 통해서 강제적 '체질 개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회수요와 기업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취업률 지표)로 무수한 인문대학 학과들이 통폐합, 폐지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대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되었다.[6] 2023년 지방대 멸망설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2021년 지방대 수시 미충원 사태는 이 멸망설을 앞당겨 입증해주는 증거로 채택되었다. 2023년 멸망설이 2014년의 저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충원율과 함께 지방대 멸망의 근거는 취업률 혹은 실업률 문제다. 지방대 취업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극적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이 하강 곡선은 정확하게 기업의 연도별 신규 인력 채용 곡선과 일치한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은 2014년 72.3%에서 2015년에는 59.1%로 급락한다. 16년에는 56.2%, 17년에는 53.7%로 매년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방대 취업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부재한 채 결국 지방대는 대기업 언론사가 주도하는 대학 평가와 역시 대기업 계열사 컨설팅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7]

2. 소멸 위기라는 정동적 사실 (affective reality)과 지방의 '미래'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송합니다, '과잉교육'과 같은 담론은 특정 정책 집단에 의해

'위기' 대응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진실 혹은 객관적 현실로 믿는다. 이러한 현실성 혹은 사실을 둘러싼 정치를 정동 연구에서는 정동적 사실 affective fact를 통한 정동 정치로 분석한다.[8] 특히 '위기'와 데이터를 통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경계 경보를 실시간 울리면서 '지방 소멸' 문송, 지방대 폐지 등의 정책은 한국 사회 주민들에게 사실로 각인되었다. 이는 반복적인 정동적 조율affective modulation의 과정으로 이제 거의 모든 주민에게 확고한 사실로 느껴진다.(felt reality)

브라이언 마수미는 사실fact과 실재성reality이 구성되는 체계에서 정동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실제적 사실이 구성됨에 있어서의 정동적 차원을

6 이하 권명아, 「불태워지는 건 여성만이 아니다」, 젠더갈등 패러다임을 넘어서, 젠더어펙트 연구소 긴급토론회 발표문을 토대로 재구성함.

7 2013년 이래 중앙일보는 대학 평가 뿐 아니라, 대학 입학 컨설팅과 컨설팅 업체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8 Brian Masumi,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affect theory reader, Melissa Gregg and Gregory J. Seig edi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London, 2010), p66, note 2.

논의한다. 먼저 여기서 실제적인 사실이란 규범적인 체계(normative system 규칙이나 관습 또는 합의와 같은)에 의해 규정된 상황을 의미한다. 규범적 체계에 의한 규정에 입각한 판단은(예를 들면 사법 체계나 행정 검토 체계 혹은 동료간 검토 과정 같은) 공적으로 인지되고 인정되는 사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실을 둘러싼 판단 체계의 작동은 전혀 선제적(preempted)이지 않다.[9]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사실이 구성될 때 이와는 다소 다른 차원이 작동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앞의 사례에서 소문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과 불안은 실제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느껴진 실재felt reality로서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은 실재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실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위협이나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던 그 위협은 두려움이라는 형식으로 감지되었다. 실제로는 실재가 아닌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이런 종류의 위협은 현재에 임박한 실재성을 갖는다.[10] 소문을 전해듣는 A 대학의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폐과나 해소에 대한 위협적인 결정이 전혀 사실로서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임박한 실재로 느낀 것은 바로 정동적 사실affective fact의 이러한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1]

3. 위기감의 주체에서 정동 능력의 네트워크로 : 사회적 신체의 새로운 발명을 위하여

지방 소멸,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필망론, 문송합니다, 과잉교육론 등의 담론을 통한 정동 정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위협한다. 지역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위협은 지방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촉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불안감이 구성원들 각자가 지역 사회 속에서 이미 할당받고 점유하고 있던 몫과 위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이다. '미래없는 지방'에 대한 불안은 이론적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작동할 때는

9 Brian Masumi,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affect theory reader, Melissa Gregg and Gregory J. Seig edi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London, 2010), p66, note 2.

10 Brian Masumi,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ibid, p, 54.

11 브라이언 마수미는 이른바 이라크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부시 정권의 선제 공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다. 나는 여기서 마수미의 논의를 A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빌어 쓰고 있다. Brian Masumi,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참조. 부시 정부의 경우 이라크의 잠재적 위협을 '이중가정'의 형식을 통해 실제화하는 방식으로 위성 촬영 장치와 이에서 전송된 이미지를 전지구적으로 발송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총동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송 자체가 이미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A대학의 경우는 소문이라는 다분히 전근대적으로도 보이고, 고전적인 산업 자본주의 시대를 풍미한 것과 같은 오랄 미디어의 매개들을 통해서 위협을 가시화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정동적 현실의 구축은 단지 신자유주의 시대의 최첨단 미디어의 전송 뿐 아니라, 소문과 같은 오랄 미디어를 작동한 '고전적' 전략까지도 동원된다는 점에서 총력전적인 과잉의 형식을 보여준다.

불안은 지여 구성원들을 이미 구성된 저마다의 몫과 자리를 다시 공고하게 만든다. 하여 이러한 불안은 이미 구성된 사회적 힘들의 작용과 권력의 배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특히 '청년'은 미래라는 시간성의 형식과 상시적으로 공명한다. 미래없는 지방, 혹은 지방의 미래를 둘러싼 정동 정치의 주요 타켓과 귀결점이 주로 청년 집단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의 미래를 청년 문제, 특정 인구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는 구조는 이런 청년이 미래 형식과 공명하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공명 구조를 통해서 지방 문제는 청년 문제가 되고, 불안은 다시 세대, 젠더, 계급에 따라 분할되고, 저마다의 불안 속에서 저마다의 문제에 침잠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지방의 구성원들은 모두 '불안'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불안은 모두 저마다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그저 각자의 몫으로 불안을 소유한다.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불안을 소유한 주체일 뿐이다. 따라서 이처럼 저마다의 이미 구성된 몫으로 할당된 불안을 소유한 주체들은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권력 관계의 패배자의 자리를 미리 선취한다. 앞서 논한 바처럼 이런 역학 속에서 지방소멸, 지방대 위기, 문송합니다 등의 담론 속에서 지방 사람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모두 '패배자'가 되어 버렸다. 모두 불안을 나눠 갖고 있지만, 그것은 기존의 지방을 둘러싼 제도적 권력 관계를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미래없는 지방'의 구성원들에게 불안은 공통적인 것인데, 왜 이 공통적인 것을 통해 기존의 소유권적으로 분할된 신체(주체)가 아닌 다른 신체를 발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그 발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정동정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은 결국 사회적인 것의 재구축과 이론화와 관련되며 단지 이론적 분석이 아니라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저마다의 불안이라는 정서를 소유한 주체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혹은 연대라는 고전적 함의를 빌어도)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불안하지만, 서로 저마다의 몫의 불안으로 흩어져, 각자 패배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의 반복 속에, '지방의 미래'는 불안의 도미노를 타고 현재 속에 '위기'의 형식으로 끝없이 출몰할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임박한 파국, 혹은 정동적 현실이 전송하는 신호들(불안과 위기, 소멸, 붕괴, 감소와 같은)을 통해 또다시 소유자로서의 주체라는 위치를 다시 공고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발명할 수 있는, 다른 신체들을 사유해나가는 길일 것이다. 경남청년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 자리에 이런 사유와 제안이 작은 단초가 되길 꿈꾸며 글을 마친다.

지방대생을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

공정의 다차원성

:공정은 다차원적 개념이다. 공정성 이론은 자원 배분의 기준·원칙에 주목하는 '분배공정성'과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는 '절차공정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분배공정성의 원칙은 다시 '형평', '평등', '필요' 원칙으로 나뉜다. 형평 원칙은 자원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성과에 기여한 비율에 비례해서 분배되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평등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받고 동등한 생활조건을 갖게 될 때, 필요 원칙은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이 배분될 때 공정하다고 본다 (박효민·김석호,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2015).

능력주의와 공정

: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 개념이 '능력주의(meritocracy)'(형평 원칙+절차적 공정)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있다. 능력주의는 혈통·신분에 따라 자원을 배분했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경쟁과 효율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로 심각한 맹점과 한계도 지니고 있다. 먼저 능력·노력 외에 많은 요소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온전한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설사 순수하게 능력으로 평가받는 이상이 실현된다 해도, 능력주의는 '차등'을 강조하는 내재적 특성 때문에 결국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강준만, "변형된 세습적 귀족주의").

지방대생이 처한 구조적 불공정

: 위와 같은 공정의 다차원성, 능력주의의 허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교육 현장에서 지방대와 지방대생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취급을 받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불평등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불공정

: 단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격차를 들 수 있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경쟁은 항상 상위계층에 유리하게 설계되며, 하위계층은 이 구조적 불공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교육 기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부모의 소득·자산·교육 수준·직업 위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커지며, 입시전형을 어떻게 조정하든 모든 경우에서 상위계층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김창환·신희연, 입시제도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법칙과 엘리트 대학 진학의 공정성, 2020). 실제로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서울대 등 주요 13개 대학 신입생 중 70%가 소득 상위 20% 고소득 계층이었다.

교육 과정의 불공정

: 정부의 대학별 재정 지원 격차를 꼽을 수 있다.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

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0여 곳의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9.3%), 연세대(4.9%), 고려대(3.7%) 등 세 대학이 전체 지원금의 17.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재학생 수의 5% 정도(분교 포함)만을 차지하는 세 곳이 총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를 가져간 것이다. 매년도 대학별 평균 재정지원비를 살펴봐도 서울대는 평균 3848억 원, 연세대는 2040억 원, 고려대는 1522억 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대학(평균 193억 원)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2018년 하위 132개 대학의 지원비를 모두 합친 금액은 5451억 원으로 서울대 한 곳의 지원비(5403억 원)와 비슷했다 (단비뉴스,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 2020.5.26.)

스카이 등 극소수 명문대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 전략에 따라 교육 자원을 독식해왔다. 현재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 집중 역시 나름대로는 경쟁 절차를 거친 것이지만, 그 승리는 교육·연구 인프라, 대학 평가 성적 등 이미 명문대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덕분이다. 한국 교육에서 자원 배분 시스템은 전적으로 소수 상위권 대학이 과도하게 더 가져가고, 하위권 대학은 턱없이 적은 몫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교육과정의 불공정을 드러내는 '역진적 배분'이다.

교육 결과의 불공정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과도한 격차를 들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출신 대학의 서열과 평판은 '절대적 신호'로 작용해 채용 차별과 임금 및 고용 격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도 지방대 졸업자들은 인서울 대학 졸업자에 비해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대 출신은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희삼,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2010).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대와 인서울 출신의 임금 격차의 3분의 2는 수능 점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백번 양보해 수능 점수 차이가 곧 생산성 차이라는 능력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프리미엄'과 지방대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비합리적 차별'은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다.

교육 전쟁과 노동시장

: 이런 불공정은 양극화한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이 '대기업(원청)-정규직-유노조'로 설명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무노조'인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고, 이들 사이의 임금·고용안정성·복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사회 '교육 전쟁'도 대학서열을 높여 번듯한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201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중 인적자본 또는 생산성에 의한 격차는 53%,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격차는 47%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설명될 수 없는' 격차를 바로 차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기승·김명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 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2016). 물론 이 구조적 차별 뒤엔 대기업의 독과점, 불법파견, 단가 후려치기, 구조적 착취와 차별이 버무려진 불공정이 근본 원인으로 숨어 있다.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불공정

: 지방대생은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거대한 불공정과도 맞닥뜨린다. 잡코리아 2019년 5월 지역별 채용공고를 살펴본 결과, 신입 또는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뽑는 6만여 개 일자리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이 45.4%, 경기 27.4%, 인천 6.1%로 수도권이 전체의 78.9%였다. 채용공고가 난 청년 일자리 10개 중 8개를 서울 등 수도권이 차지하고 2개를 나머지 시도가 나눠 갖고 있는 셈이다(단비뉴스, 청년 채용공고 80% 수도권 집중, 2019.6.6). 또 취업 카페에서 스터디를 모집하는 글도 87%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턴 공고도 76.5%가 수도권에 있었다(단비뉴스,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 2019.6.27). 이런 불균형은 문화 인프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독립서점은 416곳 중 서울이 185곳으로 약 44%를 차지했고, 울산시와 세종시에는 각각 2곳, 1곳밖에 없었다(단비뉴스, 서울 친구의 '일상'이 지방 청년에겐 '꿈', 2019.8.3)

승자 몰아주기

: 이처럼 한국 대학생의 60%가 넘는 지방대생은 교육의 기회·과정·결과 모든 영역에서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불공정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은 단순히 능력·노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아니라, 승자에게 몰아주고 패자는 소외·배제시키는 자원 배분 시스템으로 인한 비합리적 불공정이다. 한국의 교육 기회·과정·결과는 모두 공정하지 않으므로, 학벌에 따른 과도한 차등과 격차, 지방대에 대한 차별과 소외도 결코 당연하지 않다.

지방대생의 목소리

"서울대는 조국의 학교라서, 고려대는 조국 딸의 학교라서, 부산대는 조국 딸이 입학한 의학전문대학원이라서 재학생들이 (촛불시위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보면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참여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조국 논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학생이 많다. 명문대와 전문직 진입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공정과 정의가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단비뉴스, "서울대, 고려대, 의전원이 아니라서", 2019.12.3.)

"지금 정시와 수시의 황금 비율을 찾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돈이 있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에 맞게 준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든 환경이 부족하든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대학서열이나 입시제도 자체가 극단적으로 확 바뀌지 않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단비뉴스, 정시·수시 조정해봐야 '그들만의 전쟁', 2019.12.16.)

"주변에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인권 의식이 높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요. 지금 한국 교육의 시험제도는 이들의 잠재력을 전혀 발굴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좋게 평가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 시험으로만 인재를 가르는 것은 아무리 봐도 득보단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단비뉴스, 전문가도 못 푸는 '킬러 문항', 누굴 위해, 2020.2.6.)

교육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근본적 변화

: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과 차별·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능력주의', '승자독식'의 교육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육 기회 단계에서 출발선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기회 할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육과정 단계에서 심한 차등 지원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교육여건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과 평등, 필요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 결과 단계에서도 차별과 착취, 불공정 관행을 없애 누구에게나 합당한 몫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지방대와 지방대생들은 이제라도 공정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절대다수 평범한 수준의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도 상위권 못지않은 지원을 받고 제2, 제3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다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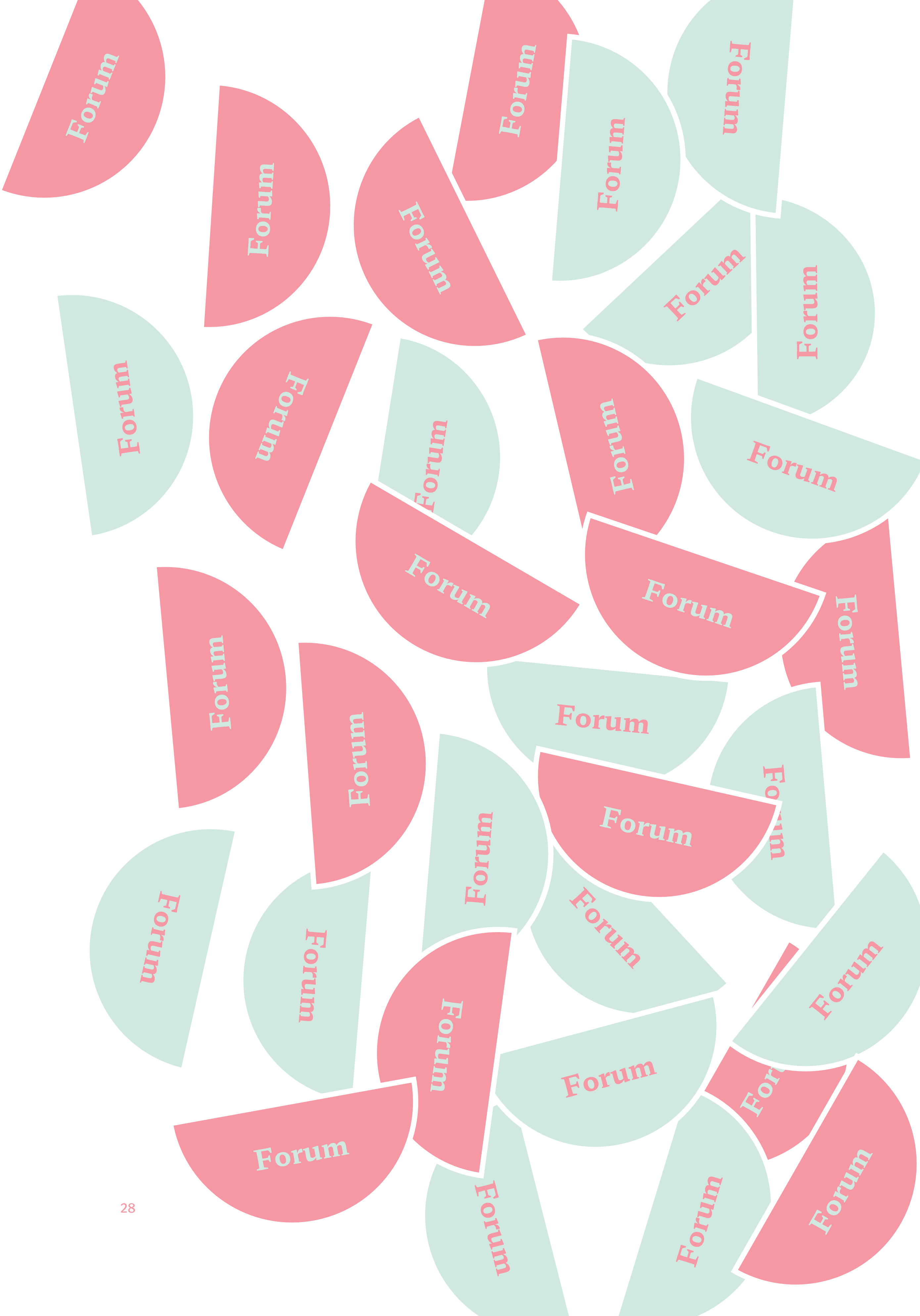
: 한국 사회의 획일화된 대학서열,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목' 문제를 해소해 기회를 다원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학개혁에서 기회의 다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로는 '공영형 사립대'와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외부 공익 이사로 선임 등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모델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역 거점국립대, 지역국립대, 공영형 사립대와 독립형 사립대가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으로 입시·교육·학위 수여를 하자는 구상이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고등교육 현장을 공공적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연대와 협력, 격차완화와 자원분산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바꿔야

: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히 청년층에서 공정이 화두다. 한국 사회에 세습과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교육·일자리·주거 등 주요 민생 분야의 자원 배분 시스템이 도무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결과가 정의롭고 평등할 수 없다면, 과정만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처참한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병사들 중 상위 10% 정도만 선발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정 능력에 따른 선발 기준과 그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개성, 배경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공정을 우리가 과연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을까? 공정이 거기에서 그친다면 오히려 거대한 불공정과 불의에 복무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개인이 전쟁터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이다. 즉 전쟁 같은 학력·학벌, 일자리 경쟁을 그대로 두고 입시제도 같은 것을 이리저리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 그 너머의 교육 시스템을 상상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교육 기회와 자원 배분 원리를 다원화하고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지방대생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이다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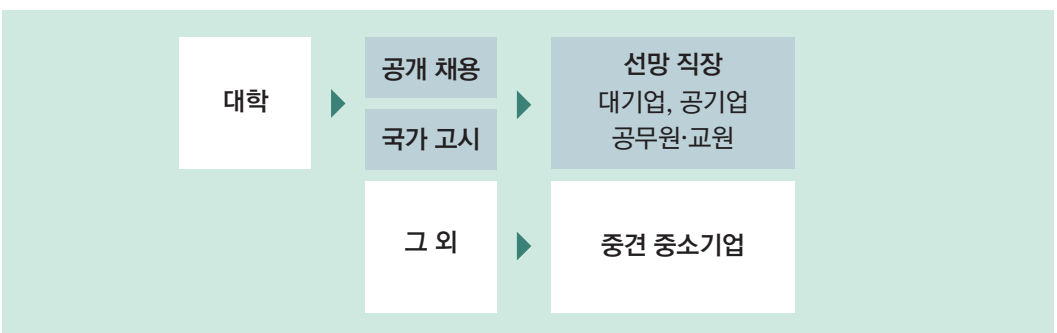
동남권 청년의 일 세계

양승훈 경남대 교수

공장을 찾는 청년, 공장을 떠나는 청년: 동남권 (남성) 청년들의 일경험과 구직

표준 취업 경로라는 가정

- 표준 경로 안의 공채나 국가고시 경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10~15%에 불과 (※ 서울 소재 대학 + 지거국 = 30%)
- 계층 관점에서 85~90%의 고용에 대한 언급이 부족
- 지역 관점에서 수도권 바깥의 고용에 대한 언급이 부족
- 대기업(e.g. 현대자동차)도 지역채용을 위해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



일경험: 알바 경험의 젠더 회로

산업도시 노동자 문화와 남학생의 알바 경로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까지 월급이 형성 되어 있어 서비스업 계통의 알바를 꺼림. 공장 일경험이 일상화 되어 있음
- 매체: 교차로, 알바천국, 지인(부모, 아는 형)을 통해서 입사.

"공장 들어가려면 알바천국 보다는 교차로. 교차로가 최고에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한 시인가 다섯 시가 되면 초기화가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기다렸다가 전화 한 번 씩 해보면 되는 거죠." (김영도)

"처음에는 같이 전역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장에 보니까 아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로 들어갔죠." (김영도)

→ **공장 알바에 대한 부모나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묾.**

여학생의 알바 경로와 산업적 가부장제

- 편의점, 학원, 근로장학생, 서비스 계통
- 매체: 알바천국, 지인

"저는 재수하던 학원에서 제가 선생님이 됐었거든요 울산 북구에 있는데에요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너무 학원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디스커버리라고 달동에 있는 거기서 서비스 직을 하다가 우선 제가 서비스직이 안맞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집 다니다가 휴대폰 매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일식을 배우고 있습니다."(이은수)

➔ **중화학공장에 마땅한 여성 일자리가 없음**

일경험: 각인된 현장의 경험

산재: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산재보험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려고 20살 되자마자 조선소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죠. 거기서 일을 하고있는데 옆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옆사람은 아닌데 건너편 사람인데... 어려요 20살밖에 안된 애인데 엘리베이터 같은 리프트에 압착사고로... 감전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7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허리뼈가 다 나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든 걸 알다 보니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구요 동기부여가 되더라구요"(조환규)

"(산재는 됐어요?) 산재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4대보험 안 들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들 수 있었는데 안 든 거에요?) 네 이건 제발 찍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막 그 와가지고 막 사장이 그냥 호들갑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죠 이게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신경이 나가서 그런지 그냥 멍해 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의사도 호들갑 떨고."(천우현)

차별과 정규직: 고용의 카르텔, 전환해 주지 않는 공장

"취업 했다 하면, 정직원 이 정도인데.. 쉽게 뽑는 추세도 아니고. 근데 거의 거기서 일하다가 젊은 형들 가정 있는 형들 보면.. 가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다니기 때매 .. 그러나 언제 잘릴 지 모르는 거죠. 보면 아무리 그런 데라도 낙하산 있더라구요. 가족의 가족. 누구 아들. 낙하산 빼면 거의 없어요. 공채 넣는 거 아니면, 일하다가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김영도)

"프레스공장이죠 프레스에서 이제 그걸 적재하고 ANT 분류랑 그런데 물류 그거를 이제 걸어가지고 해주는 회사 였죠. 그 되게 이때 제가 엄청 그 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정말 생각을 팍 품었던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그니까 하창 에서 정규직으로 온 이런 사람들 막 싫지는 않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프레스 이거 세팅을 해 놓고 3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그냥 장기 두고 놀아요."(천우현)

근로계약 미작성과 직업에 대한 전망

- 매체: 알바천국, 지인

"(근로계약서는 잘 썼어?)
매번 새로 쓰고 또 새로 쓰곤 했어요. 해수로는 1년인데 1년을 채운 건 아니죠. 그만두고 왔다갔다 하니까. 공장이 있으면 밑에 거의 각 산업체마다 다르잖습니까. 여기서 같이 일하는 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데 월급 받는 데는 다 달라요. 산업체마다 4대보험을 떼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게 불법이긴 불법인데, 저는 안 떼는 곳을 더 선호했어요. 어차피 이 일을 평생할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 세금 떼고 안 떼고가 월에 몇 십 만원 차이가 나니까. "(김영두)

전화하는 형들과 비정규직 일자리

-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 알선은 오지만 하청일 확률이 높고,
기계에 대체되는 작업이며, 자기 시간이 없기에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않게 됨

"결국에는 고스펙으로 들어가는 본사가 아니면 다 하청인거죠. 사실은 다 하청쪽이라서"(정하영)

"애초에 공장에 취업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17년도에.. 그 때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자동화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동화 자리가 남들이 보통 개인으로 하면 수동으로 깎으면 2대 정도 맡는데, 거기는 20몇 대를 3명이서 맡아요. CNC절삭기. 로봇이 기계 1-1, 1-2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는 대충 기계를 볼 줄 알아야 해서. 그렇게 4개월 일하다가 17년도 12월달? 그 때 쯤에 회사가 뭐라뭐라 하면서, 정직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때 고민을 했어요. 이 정도 돈이면 정직원 되어서 보너스 받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 일을 평생 하지는 못 하겠더라구요. 누굴 제대로 만나지도 못 하고.
취업 했다 하면, 정직원 이 정도인데.. 쉽게 뽑는 추세도 아니고. 근데 거의 거기서 일하다가 젊은 형들 가정 있는 형들 보면.. 가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다니기 때매 .. 그러나 언제 잘릴 지 모르는 거죠. "(김영도)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일경험과 진로선택의 딜레마

– 지역의 일자리는 생산직(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은 상황. 숙련 생산직 노동자가 되기에는 구조적 제약과 본인의 의지 모두 쉽지 않음

“본인의 진로의 방향만 바꾸면 이 지역은 공장이 많으니까, 단순히 자아를 찾는 게 아니라 돈벌이만 생각하면, 공단에서 필요한 자격증만 준비하면 열리는 것 같이 보였다. 이 쪽은 공단에 자리가 치우쳐 있으니까.”(김권준)

“공장은 어찌 보면 공대나 폴리텍 애들이 거의 다 가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경험이 있으니까 관리직 가면 되지 않아?) 그냥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하기가 싫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김영도)

➔ 산업도시 울산과 경남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나, 그 자리는 생산직. 대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관리직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성균, 2017).

일자리 부족량 (구인 – 구직)	2000	2005	2010	2013
서울				
사무관리전문직	-85,543	-84,482	-120,069	-156,245
영업판매직	11,509	-3,656	10,757	3,112
생산직	-40,361	-41,226	-32,810	-32,810
단순노무직	-145,884	-39,987	-89,038	-81,356
울산				
사무관리전문직	-6,059	-4,519	-13,124	-9,825
판매서비스직	-950	-1,357	-3,244	-2,931
생산직	-4,482	-2,642	1,082	17,134
기계 관련직	576	977	3,480	4,950
재료 관련직	1,128	846	265	6,053
단순노무직	-16,883	-3,352	-3,490	6,476

“이불 밖은 위험해?”: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이라는 선택지

- 부모와 타협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집안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붙기만 하면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가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된 애들이 많더라구요. 안 친한 애들 소식만 봐도. 생각보다 다들 하니까 되긴 되던데요. 공무원 시험이 핑계 대기는 좋은 것 같아요. 서른 전까지는..”(김영두)

“낮 12시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갑자기 공무원 할 생각 없냐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친척 중에 공무원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영어교육과 나왔는데 임용 준비하다가 2번 떨어지고 6개월 동안 9급 준비하고 붙었다고 하대요. (나이차이가?) 11학번이요.”(김권준)

“사범대라 하더라도 시험 쳐야 되는 거고. 또 간호학과 이런 애들 국시 붙어야 하는 거고. 다 보면 애들 대학교 졸업 한 애들 보면, 다 공무원 준비하고 있던데요. 거의 열에 아홉이 그렇죠. 걔들도 시험 밀리고 그러니까.”(김영두)

“여자가.. 약간 세뇌될 지경인데. 여자가 육아휴직내고 평생직장 할 수 있는 건 공무원 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은나)

- 그러나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시험은 주로 '거점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되어, '시험'을 통해서 지방사립대 출신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황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2018년 한 해 100명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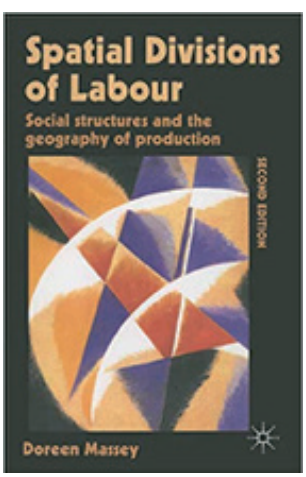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2018년 한 해 동안 취업한 경상대 졸업생은 100명이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해당하는 인원의 70%다. 특히 교육부의 '2018년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대는 전국의 공공기관 취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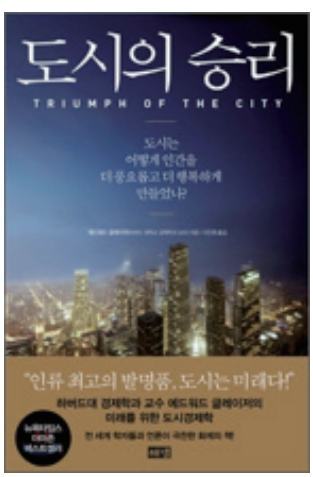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뽑은 대졸 사원은 795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할당된 비율은 18%,143명이다. 이 가운데 100명이 경상대 졸업생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노동의 지리적 분업과 지방대생의 일자리 변동

- 노동의 지리적 분업
  - 구상:메트로 폴리스
  - 실행: 지방 산업도시
- 제한되나마 존재했던 구상 기능의 수도권 이전
  - 남양연구소, 모비스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현대중공업 엔지니어링 센터
- R&D 및 설계 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능도 수도권으로 이전. 대규모 설비투자를 대기업이 '지식기반산업'에 적응하기 위해 진행
  - 구상과 실행은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는 상황에서 생산도시의 위상이 다시 떨어짐
- 생산관리직과 사무직 등의 중숙련 대졸 일자리도 지방도시에서는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듦.
- 생산도시에서 하청생산도시(아웃소싱의 대상)로 전락. 산업 내부의 위상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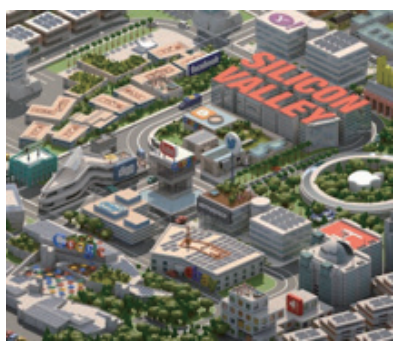
→ **고용 창출 여력이 적음**





산업과 도시, 지방의 변동 그리고 지방대생의 진로 선택

- 기술과 일자리
  - · 4차산업혁명과 자동화, '사라지는 일자리'
- 제조업 구조조정
  - · 이중노동시장과 생산도시
  - · 신규 고용과 공적자금
- 인구 소멸
  - · 여성을 거부하는 지방 산업 가부장제와 지방을 거부하는 여성
  - · 결혼 하고 싶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높은 출생률의 부조화



여성을 거부하는 산업도시, 산업도시를 거부하는 여성

: 산업도시 여성들의 일과 고향

산업적 가부장제

"대부분 제 친구들은 자격증 따서 사무직, 간호사, 조무사 이런쪽으로 갈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예체능 쪽으로 가고싶다 하는애들은 미용사, 피부미용사도 많이하거든요 그다음에 네일쪽으로 해서 사업할려고 해요. 사무직은 회계. (이게 정규직은 아니자나요?) 대부분은 아닌데. 저는 (정규직) 못봤어요 다 그냥 계약직 아니면 아웃소싱..."(이은수, 26)

"약간 요즘 여자들은 공무원준비를 할려고 해서 그런... 아 그래서 더 공무원준비를 하는건가... 어... 약간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거 같기도 해요.... 너무 당연하게 공무원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생각해보니깐 일자리가 마땅히 구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지 현차 갈거아니고 공기업갈거

아니고 이렇게하면 대부분 부산쪽으로 빠지더라구요 일자리가 잘 없다보니깐 저희 오빠만 봐도 그래픽 디자인 준비하고있는데 일단 울산은 그런 뽑는자리가 진짜 없어서 가까운 부산 멀리보면 서울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생산직쪽 공장 들어가는거 아니면 울산에 자리는 잘 없는거 같아요."(이은나, 28)

지방소멸과 N포 세대,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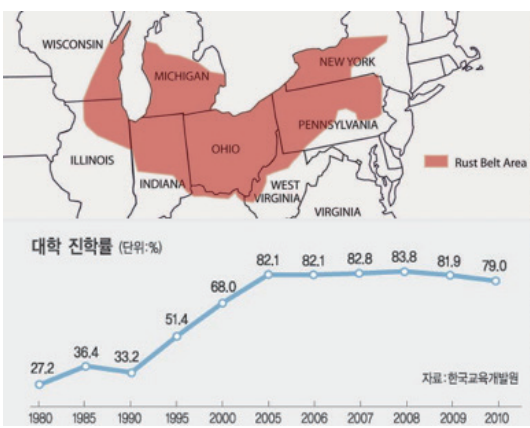
- 트릴레마: 세대/노동/젠더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없음
  -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세대는 고려하지만, 노동과 젠더가 배제됨(성장연합의 정치)
  - · 저출산고령화를 고민할 때는 세대의 문제와 젠더를 고려하지만 노동 문제가 배제됨
  - · 노동 문제를 고려할 때는 세대와 젠더의 문제가(동남권 중화학공업 정규직 노동운동의 정치) 배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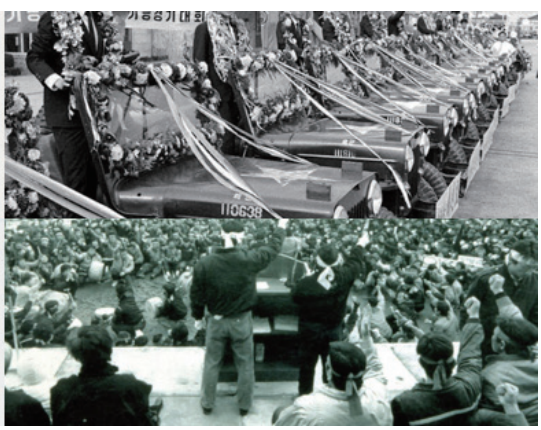
➔ **지역 청년의 노동 문제는 3가지 트릴레마를 통합적으로 살펴내는 작업 없이 풀어낼 수 없음.**

- **교차성 관점에서 세대 X 노동 X 젠더(여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실효적인 대책이 가능**

'엄빠 찬스'의 시효

- 기계공고 숙련 노동자의 정년
  - · 엄빠 찬스의 생애주기적 한계
- 대학 진학률 70% 시대의 산업도시와 청년 고용
  - · 러스트 벨트와 부울경





para-text

발제문 너머 지역청년포럼의 파라-텍스트

파라 텍스트는 주텍스트(본문)를 보완하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제라르 주네트는 “파라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발제문과 현장을 더욱 풍부히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포럼 현장과 온라인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중요한 발언들을 여기에 접붙이고자 한다.

김상원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이 빠져나가는 경남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해야만이 경남에도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빈

지방청년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 독이자 약,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생각한다.

ID: pppeace

지역청년을 다루는 내용 자체가 너무 적고, 지역청년을 다루는 이들의 논리 또한 수도권의 논리에서 진행되는게 사실입니다.

권수빈

내부 오리엔탈리즘 관점에 따르면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가했던 주도면밀한 담론이, 한 국가 내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한국사회 지방의 문제에도 대입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다.

권명아

현재의 상황은 지방에 대한 담론 혹은 담론으로서의 지방이 지방의 물질적 현실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는 담론투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 담론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론적인 투쟁, 이론적인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ID: 류태선

지역청년들이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적으니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겪게 하기 위해 많은 활동과 세미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권명아

소멸 위기라고 하는 미래는 객관적 현실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느껴진 현실로서의 정동적 리얼리티가 구성됨으로써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현실화되었다. 지방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추진되어 온 이른바 고등교육 개혁정책은 지방을 이론이 없는, 이론이 필요 없는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의 장소로 할당하고, 수도권을 글로벌자본주의에 상응하는 중심, 이론과 기획의 자리로 배치하고 할당해 왔다.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감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정부와 정책 담당자, 지식인들의 담론 구성 과정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ID: 방구석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해서 자존감을 낮추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중앙에 있는 대학출신 친구들 앞에서는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이 다수 있었는데 경남청년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경남청년과 지역청년이라는 가치가 더해져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곽영신

한국교육의 자원배분 시스템은 전적으로 소수 상위권 대학이 과도하게 더 가져가고, 하위권 대학은 턱없이 작은 몫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역진적이고, 교육과정의 불공정을 드러낸다.

ID: 유니

대기업 면접에 참여해보니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으로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곽영신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과 차별, 소외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의 배분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ID: 크로니클

지자체 관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지역청년들의 정보 습득이 달라지거나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지자체에서도 활동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결국 지역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승훈

청년들이 일경험 과정에서 못 볼 꼴을 많이 보게 된다. 산재를 많이 보고, 사람이 죽거나 아프게 되는 중대재해를 많이 본다. 청년들은 공장과, 지역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ID: 봄

경남에서 살고싶은 제가, 일자리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슬픈 요즘입니다.

양승훈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해 대학에서는 상시취업률, 유지취업률 관점에서만 본다. 그들이 어떤 노동시장에서 얼마를 받고, 몇 시간 일하고, 부당하게 무임금으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며, 그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망각한다. 지역 일자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ID: 금연 홍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능력으로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가 된 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양승훈

디테일 하나, 하나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들이 쓸려 가듯 관성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따박 따박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하고, 기획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귀에 못이 박히게 지역의 청년들이 더 많이 떠들어야 한다.

ID: 금연 홍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능력으로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가 된 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ID: 김미화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열심히 말하고 의견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D: pppeace

지역에 사는 청년들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개념을 정할 때 지역청년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D: 오기택

더 많은 목소리. 참여가 필요합니다.

권명아

지역소멸지수에 따른 지역 정책이나 지역 모니터링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 학생 모집 단위로 지방대를 평가하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
일자리를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
능력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ID: 방구석양작가

지역에도 분명 무한대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 출신이라고 인정받았던 경험보다 무시 받은 경험이 많아 입을 닫고 살아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곽영신

문재인 정부가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다시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공영형 사립대가 활성화돼서 각 지방에 인서울명문대 수준으로 신뢰할만하고 갈만하다 하는 대학이 3~40개 정도 생긴다면, 그만큼 자원이 분산되고 서열과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ID: Jenny Lee

대학의 공공성 너무 중요해요.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장사치가 아닌데 말이에요

양승훈

지방 사립대는 고사되면서 단순 기능 학과들만 남기게 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문제는 고등교육 받은 시민으로서 청년이, 자신의 의무와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있다.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 college)처럼 지방의 사립대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위주의 교육을 최대한 편성해야 한다.

ID: 박진형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각적인 교육이 교육의 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듯합니다.

권수빈

'문제의 핵심을 봐야지', '공통적으로 뭘 느끼는지 봐야지', '대부분이 뭘 경험하는지 봐야지' 같은 태도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이질적인지, 어떻게 복잡한지를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담론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발언자

발언순서순

이주열 | 경남
박홍열 | 강원
안태형 | 경남
조인우 | 경남
정수진 | 독일
최영철 | 서울
김빈아 | 경남
김영철 | 경남
심아준 | 경남
박서재 | 전북
강보배 | 제주
김다정 | 광주
최종환 | 울산
김설 | 광주
김민성 | 대전
천현우 | 경남
박혜민 | 서울
서난이 | 전북

지역청년필리버스터

Filibuster

지역청년 필리버스터

"지역청년이 이어 말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 비뚤어진 '독주'를 막기 위해, 지역청년 주체들이 스스로의 발언으로 사회의 인식을 지연시키고 방해한다. '지역청년' 당사자,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서로의 말을 잇고 엮어서 새로운 경로의 지역청년 담론을 토론해 나간다.

Filibuster

8월 참여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지역과 위치에 있는 발언자를 구성하는 선정 과정을 거친 후, 한 달 간 발언의 내용을 논의하고, 함께 다듬어가며 준비가 이루어졌다.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40분
경남도청 대회의실, Youtube

Filib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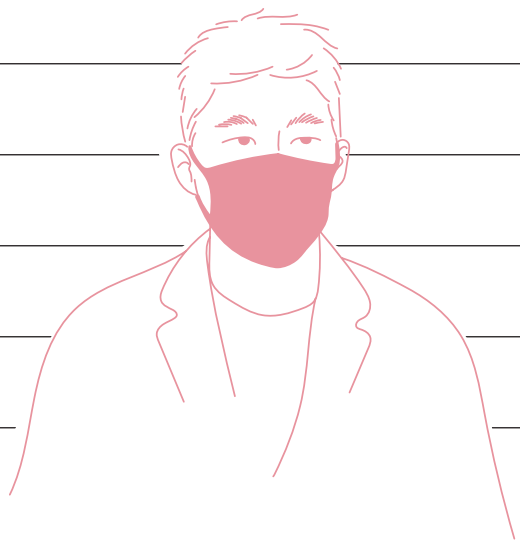
지역청년필리버스터 스크립트 01

#지방대

#청년정책

#담론

#청년의삶



이주열

경남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대학 다니는 이주열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청년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주변 그리고 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몰랐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흔히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중 하나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에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정과 능력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첫 번째 경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할 때입니다. 검정고시,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의 진학이라는 첫 번째 선택은 고등학교 이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어질 지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끝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또 성별에 따라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졸업과 동시에 2년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삶은 선택의 연속인 셈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다른 삶, 다른 진로를 걷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말을 저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마스크를 쓴 친구들이 하나 둘 전역하면서 그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라도, 4단계라도 저는 밤마다 온라인에서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게임도 하고 막연히 여행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오글거리지만 인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복학부터 졸업, 취업,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곧,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뭐 하고 살까라는 이 추상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그 친구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으면 어떤 대학을 가고싶은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이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친구들과 저는 한참을 아주 한참 다른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서로 조언조차 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 안의 불안감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만 살아보자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만 살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삶이 좀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선택한 진로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유행하는 말 한 마디에 그냥 웃으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이런 제 친구들을 누군가는 어떤 위험에도 도전하지 않으며 사치스러움을 거부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시키면서 사이드 메뉴 하나 더 시키고 싶고 그냥 덮밥보다는 다른 부재료가 올라간 메뉴가 더 맛있어 보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라는 말에 부정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건 당장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거나 또는 부족하게만 살지 않는 것

서로 조언조차 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 안의
불안감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이 눈앞의 목표로 정해졌을 뿐입니다. 어쩌면 부족하게만 살지 않는 것은 저희에게 사치이고 적당하게만 사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들은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도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매 순간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자격증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 모두가 도전입니다. 적지 않은 여유 속에서 취미를 찾는 것 또한 도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시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지역의 얘기를 넘어서 수도권에서도 일부 통용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제 주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청년 인구의 절반이 살고 나머지 지역의 절반이 삽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대학 진학을 결정합니다. 올해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9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입니다.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서의 경험이 사회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은 어떤 존재로 다뤄지고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은 얼마 전 같은 지역과 같은 지역의 대학과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된 학교의 이름으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경쟁률도 높았고 지원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그 모습을 보면서 꽃길만 걸으라는 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어떤 학원은 통합한 대학과 입시 성적이 차이가 난다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같은 대학으로 졸업하게 되느냐'고 호소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정말 사소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어떤 하구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학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이미 학령 인구 급감으로 2000년도를 기점으로 30개의 대학이 통합되었고 35개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된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률이 증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절대적인 인구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대학과 통합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통합이 끝나고 모두 졸업한다고 해서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는 선례로 남아서

계속해서 '쟤네들한테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던데'라는 무시로 남겨질 뿐입니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원들을 무시하는지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총장과 교수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학생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청년 정책도 지역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 보면 청년들 간의 다툼과 경쟁만 심화될 뿐입니다. 또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언젠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관심이 집단 내에서 발현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지원은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을 돕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청년 정책 예산이 20조에 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1,500개의 정책 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년 근처에 있는 정책은 국가장학금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뒷받침합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니라면 그것마저도 없는 셈입니다.

청년 정책이 정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또 집단을 단순히 하나로 규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천에서 용이 되길 바랐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일 뿐인데, 언젠가부터 개천에 사는 붕어 개구리 가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지원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지원 정책을 보면 막상 받을 건 또 없습니다 그냥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론 기사 한 줄을 위해 사진 한 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내 행동이 의미 있다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더라도 사실 아쉬움을 느끼는 순간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개최되는 여러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저는 게임에 처음 접속한 모험가처럼 느껴집니다. 메이플 스토리나 로스트아크 등 뭔가 육성해야 되는 게임 성장형 RPG를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용사님 환영합니다'라는 이 말로 누가 반겨줍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하나씩 의뢰를 완성해 나가며 마법사를 무찌를 사람으로 명성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서 유명해지면 '여기에 악마 군단

장은 없다고 검은 마법사는 여기 없다'며 다른 마을로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저는 외지인입니다. 일면식 없는 농사 일 하나로 규정하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의뢰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서 유명해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청년이다'라는 말과 '이 세계를 구원해 줄 용사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수없이 말해도 다음 행사에서 내 얘기는 또는 누군가의 얘기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행 포르노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길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자신감을 내서 말하는 청년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과 사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청년 정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행정의 표상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어느 누군가의 얘기이면서 또 경험해보지 못한, 공감받지 못할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남 내에서 발생한 지역 내 갈등 문제도 있고 부모계층의 자산으로 인해서 청년 계층 간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간 갈등도 존재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발굴하지도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이라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라도 청년은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꿈꾸는 세대이기 때문에, 응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이 없어도 청년에게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지방대

#소외감

#지역청년 지원

박홍열

강원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박홍열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도 고민할 수 없었던 지역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수료했습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삶도 있고, 적당히 사회에서 바라는 대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제 주변의 삶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라는 지역에 살아오면서 체감했던 지역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저와 제 친구들의 삶의 궤적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 인문계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달라지는 비평준화 시스템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가 떠오를 만큼 아마 강원도는 이렇다 할 자원과 산업 기반을 지니지 못했기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앙으로 내보내 강원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취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인 서울'이 선생님과 학생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학과를 갈지에 대한 진로 상담은 전무했고 입시 상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인가가 더 중요했고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은 저보다 상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선생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친

구는 공부를 잘해 서울로 가니까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성적에 맞춰 적당히 즉흥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과를 골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간 동창들 중에서도 소위 명문대에 간 친구들은 강원학사라는 곳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강원학사는 서울로 대학을 간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 생활에서 숙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강원도에서 명문대로 가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 혹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재경 동창회 행사를 참여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수들이 와서 동창 동창 후의 행사를 축하해줬다고요. 고등학교와 같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저는 어떤 모임에도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간 것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첫 학기 저는 학과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매 학기마다 공무원 영어 시험과 토익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재학생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당연한 시스템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전공이 행정학이기에 더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들도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니 선후배와 동기들이 공무원이 되는 속도는 빨라져 있더군요. 학교생활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는 나이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서 대학 입학 직후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학과인 만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몇 학번 위 선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준비하다가 서울에 올라가 보니 엄청난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고시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졸업한 학부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눈여겨 봐 눈 여겨봐 주시던 교수님이 대학원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교수님께서는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도 해주시고 학업 학업과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 중에는 석사를 여기에서 하고 박사를 해외에서 하면 나중에 학교로 돌아와서 좋은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던 연구원에서도 박사님들에게도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에게 해 주셨으니까요. 저를 좋게 봐주시는 마음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정확한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졸업한 학부에서 같은 대학 다니고 석사와 박사를 마친 이후에 같은 학교에서 교수나 정규직 연구자 직위를 얻으신 분들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학부와 석사와 박사를 맡으신 분들은 같은 학교에서 정규 연구직 교수직 자리를 얻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과의 교수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서울과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공부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 미래는 밝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강원도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원도에서 계속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의 교류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울 명문대에 진학한 동창들의 근황을 듣곤 합니다. 그들이 강원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역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미래를 기약해야 하는 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뛰어놀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가야, 대학원은 해외로 가야 괜찮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공을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삼아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연구 분야를 설정해서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할지 생각하기보다, 그저 지역을 떠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조언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곁에서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뿐이니까요. 도덕적인 당의와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일치하

돌이켜 보면 지역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미래를 기약해야 하는
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는 않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행정학과 출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강원도에서 9급 공무원을 많이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행정학과 후배들처럼 요즘에는 공직에 들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9급 공무원을 고민 없이 빠르게 택했을까요. 저는 지역에 사는 청년으로서의 소외감을 자의식화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초청 강의만 했다 하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까운 가족부터 스마트폰 안에서의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가 서울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선택지는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는 강원도에서 더 유효하게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강원도에는 비평준화 체계도 사라졌고 간판보다는 진로를 중요시하는 교육이 정착됐고 제 학과도 더 이상 영어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여전히 강원도에 세금이 들어가는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서울로 내보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 지원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명문대에 간 친구들이 강원도에서 단 한 명도 정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오히려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지역의 경제와 공공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런 지원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이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에서 청년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청년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서울 수출 방식이 아닌 지역의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이라는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성된 정책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지역 청년들은 자기 소외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진짜 자기 삶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해 온 것들은 푸념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 청년들의 푸념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사회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런 자리에 감사함과 연대감을 표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에서 온 안태형 님이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인프라

#지원방안

#인구감소

#이동권

안태형

경남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열리는 경남 청년주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경남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청년 여러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군에서 살고 있는 안태형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경남 청년주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경남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과 같은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과 청년주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신 청년기획단, 그리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청년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와 함께 지방의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청년들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겠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청년담론에서 항상 외면받고 있는 지방 소도시 청년들, 지방의 지방 청년들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 합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고,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부인과가 없어.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에 계시던 유일한 산파 할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사극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학교는 작

은 분교였던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녀야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히치하이킹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와야 했던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강물이 얕을 때 노란색 물신을 신고 강물을 건너왔고, 비가 오거나 물이 불어났을 땐 뗏목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저학년 고학년 두 개 학년이 함께 합반을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3학년, 2-4학년, 5-6학년이 같은 반을 쓰고 담임 선생님도 같았던 겁니다. 합반을 해도 학생 수는 한 반에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짝꿍이었던 친구가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그 친구는 저의 동네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면 꽤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식 지원이 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했지만, 한 겨울에는 난로에 도시락을 올려 데워 먹기도 했고 고구마나 떡을 구워 먹을 수도 있었던 많은 추억을 남겨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생활도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학교가 폐교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 본교였던 학교와 통합이 되면서 저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급식도 먹고 평범한 초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도 전교생이 100명 정도 시골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해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특별해 보이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지방의 지방 청년이 청년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나 대학 진학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주위 친구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떠나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점점 더 치열하게 떠나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을 떠나지 않고서는 조금도 누릴 수가 없기에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의 삶은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가족을 떠나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의 삶도 화려한 도시의 조명과는 달리 고단하기만 합니다. 도시에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청년에게 몸 누일 만한 공간 하나 없다는 것이 아니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겨우 허락된 곳은 습기가 가득 찬 지하방이거나 옥탑방이거나 몸 하나 간신히 누울 공간인 고시원 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알바를 해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청년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버티는 것도 점점 힘겨워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찾아온 재난이 가장 연약한 청년들을 제일 먼저 강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도시로 가는 것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연결 통로인 대중교통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터미널의 배차 시간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통합 배차로 인해 인근 시에서 승객이 없어 빈자리가 날 때만 작은 군 단위 지역까지 시외버스가 와서 대도시로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출발할 지 알 수 없는 버스 시간, 모두에게 허락하지 않는 시외버스의 빈자리, 면접, 학원… 도시로 가야 하지만 지방의 지방 청년들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앞사람이 타면 자신이 탈 자리가 없어져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 청년은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원망하다 지쳐 포기하곤 합니다. 포기하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멀지 않은 곳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방의 지방 청년들은 도시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방의 지방 청년들은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들의 현실이 힘들지 않다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한 현실 그 이상을 지방의 지방청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향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 지방 전체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오고 말 겁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방의 지방은 이제 청년들이 멸종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의 대도시들도 언젠가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청년들은 어디에나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도 부산에도 이곳 창원에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합천에도 청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재고양 합천의 인구가 작년 통계로 4만 3천 명 지난해에만 무려 5천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없어 예식장도 하나 둘 없어지고 이제는 고령인구도 줄어 장례식장마저 살아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합천의 인구 감소를 단순 계산하면 합천 사람이 모두 사라지는 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 기업의 80% 이상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방 대도시에 행정과 산업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들은 떠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모두가 꿈을 찾아 서울로 대도시로 떠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은 큰 도시 몇 곳을 제외하면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의 면적의 비율이 전 국토의 3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주요 기업 90% 이상이 몰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 오는 것이 맞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수치대로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막아야 합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들을 지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모든 면에서 나은 대도시로 가는 것을 막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서울이나 대도시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면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도시로 나가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방에서도 꿈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청년들보다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방과 대도

시를 오가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들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방과 그 지방 의 지방이 함께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충분히 늦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방의 지방 청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방의 지방 청년들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이주

#지역경쟁력

#다양성

조인우

경남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청년 조인우입니다. 저는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빠르게 느끼고 있으며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의 부족한 의견이지만 펼쳐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큰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의 중심지가 있어야 하고 그 중심지 상업과 교통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통해서 재화와 정보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가 유례 없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한 데 모여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당연히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중심지로 가야 합니다. 이 의미가 담긴 속담이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마는 제주 말이고 최고의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 말과 같은 논리라면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미국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아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큰 꿈을 꾸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것만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지에서 꽃피어질 문화는 분명 훌륭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과포화된 중심지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가치가 꽃 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수도권에서 큰 꿈을 꾸기 위해 많은 청년이 정당한 경쟁력을 넘어 극심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최고가 아니면 2등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시도하다 보니 부족해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절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깊이는 안정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불 같은 경쟁으로 집값과 물가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누울 곳조차 없는 청년은 최선을 다해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생존을 위해 또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한강의 기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기성세대들은 뼈 깎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우리 가족, 우리 회사라는 마음으로 밤늦게 야근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내 집이 생기고 내 차가 생기고 내 자식 내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나라가 힘이 생겼고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 '늦게까지 야근, 휴일 없이 일할 줄 알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해온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우리 착한 청년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해 왔습니다. 공부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고 자신의 더 큰 꿈과 야망을 위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집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했을까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진출로 발전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발전보다 부작용이 더 커져 갑니다.

수도권에서 큰 꿈을 꾸기 위해
많은 청년이 정당한 경쟁력을
넘어 극심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서 완성되었기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재가 충분하기에, 넘치는 인재들끼리 한정된 자리싸움을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같은 과제가 서울과 지방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20년 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방의 인재들 역시 매우 유능하기에 서울에 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날 때도 많지요. 그럼에도 지역 인재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지역적 한계라는 울타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바로 서울 수도권에만 치중된 정책 및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지자체에도 충분히 좋은 정책이 많지만 대한민국 전반적인 정책 흐름은 수도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수도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도권과 서울 매우 중요한 지역임은 틀림없으나 그에 못지않게 지방도 역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가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였던 것은 어제의 최고일 뿐, 매일 매 순간마다 최고의 것들이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신의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매 순간 최고가 나와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최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최신의 것도 아닌 최고의 것도 아닌 내가 원하는 것, 개인화된 시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를 노리는 '세그먼트 마케팅'이라는 시장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세상의 중심이 중심이 될 MZ세대는 최고의 것, 최신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 내 경험에 기반하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을 변화하고 있고, 그곳으로 시장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에서만 나오는 것 것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려 있는 다양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정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개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다만 아직 다양성이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품어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새로운 곳

이 창출될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다양한 아이디어의 무대는 수도권으로 한정하기에는 너무도 좁습니다. 지방으로 눈으로 돌려 청년들의 더욱 높은 무대가 아닌 더욱 넓은 무대로 가야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어쩌면 더욱 빨리 변할 시간 속에서 일부 기성세대는 지역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예찬론을 펼칩니다. 기성세대 노력은 충분히 존중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방식은 예전의 시대에만 해당하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청년이 되려면 더욱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을 개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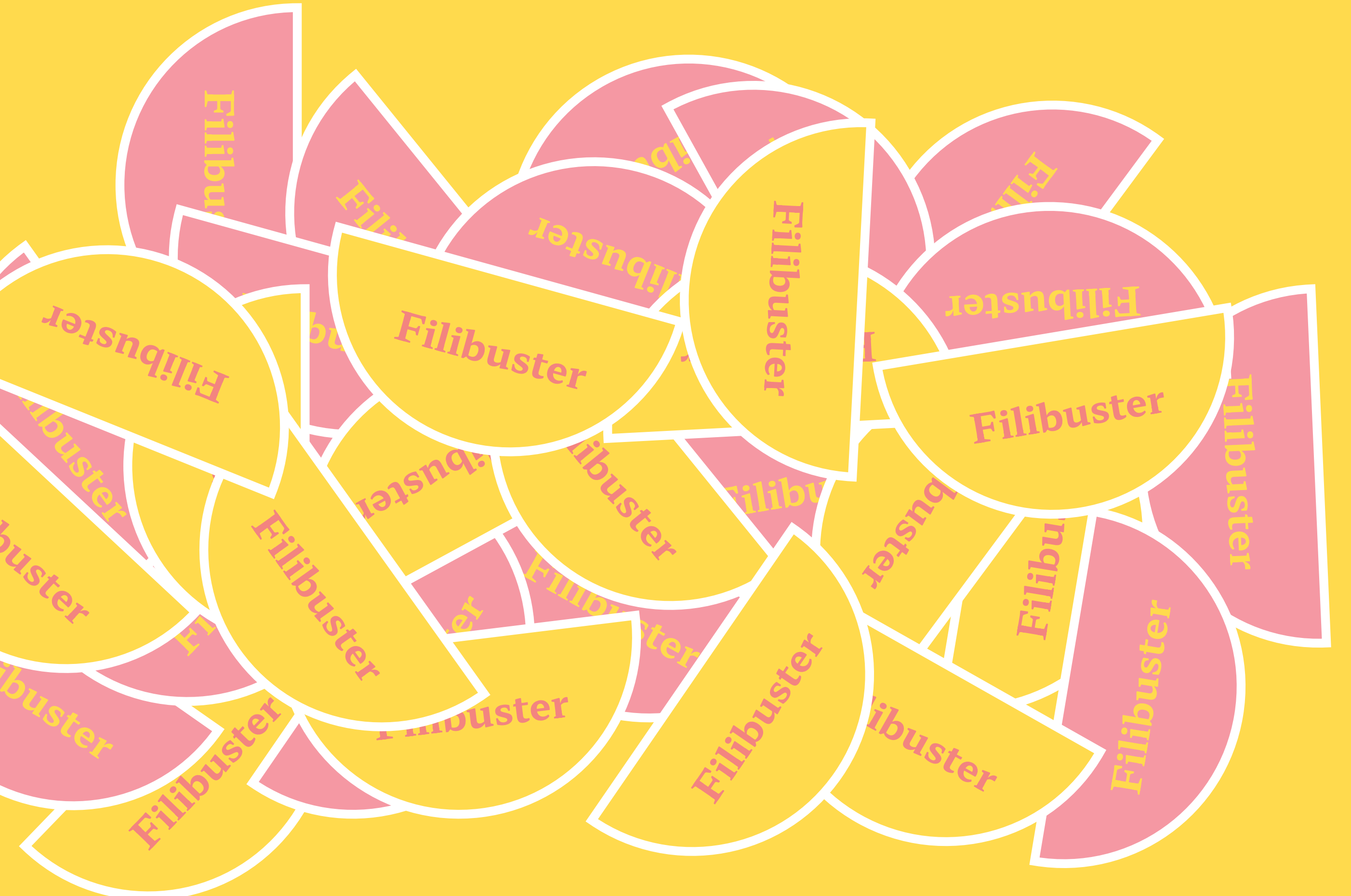
이 지방 개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성세대의 청년의 인식 변화. 기존의 생활 패턴과 사고 방식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수도권 진출이 성공의 키라고 믿습니다. 청년은 수도권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성세대가 수도권에서 열심히 마련해 놓은 자리에 청년이 믿고 진출을 했지만, 지금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반면 기성세대는 지방을 둘러보지 않기에 청년들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성세대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그리고 청년도 지방으로 눈을 돌려 함께 바라본다면 새로운 자리와 가치가 탄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지역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화석에너지 공급을 가장 가까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발전해왔고 수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지역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체 에너지가 계속 등장하고 지역적 분배를 통해서 더욱 빠른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방행정 지역에 고루 분산한다면 지역 청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고루 넓혀진 무대에 한없이 넓어지기만 한다면 그 또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적절한 지역 경쟁 구도를 갖추어 청년

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반영하여 청년에게 고르게 펼쳐진다면 대한민국은 전체가 청년의 꿈과 희망으로 빛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모두가 불바다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우리 땅을 개척하여 청년들이 일구고 가꾸는 신 청년 개척 시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이주

#복지제도

#교육시스템

#환경

정수진

경남/독일

안녕하세요. 진주를 배경으로 활동하다 멀리 독일로 넘어와 살고 있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역 청년 필리버스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동네 그대로 살던 진주에서 그대로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주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이어서 사회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점점 이곳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마음과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훌쩍 떠나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성적을 꽤 높게 평가해 주는 독일 시스템 덕분에 모순적이게도 이 땅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시작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과 관찰자의 시선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독일에도 수능과 같은 시험인 아비투어가 있고 그 아비투어를 치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동기들이 아비투어를 준비하던 기간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아비투어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도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독일 대학에서는 조금 작은 지역에서 큰 도시로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한국처럼 인 서울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몰두하는 현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평준화된 대학과 비교적 쉽게 학과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인원 제한이 없고 성적과 무관하게 입학 가능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투어 점수는 한 번 취득하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직업 교육을 받다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해보고 과를 바꾼다거나 많은 학수의 학생들이 학업이 안 맞는다 느껴지면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같이 입학한 친구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 나도 힘든데 한다. 같이 힘내자"며 설득을 했더니 친구는 "너는 여기서 재미를 느끼니"라고 물었고,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꽤 오래 답을 망설였습니다. '공부를 누가 재밌어서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독일 친구들은 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흥미가 없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시간낭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직업생활을 하고 30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곳,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전공을 계속 새로 바꾸며 학교를 오래 다녀도 큰 지장이 없고 흥미가 없다면 그만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의 선택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고 그걸 수습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는 독일의 복지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일의 대부분의 대학은 국공립이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의 위기에 독일은 아동수당을 제공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약 25만 원부터 약 30만 원을 매달 지원합

한참 직업생활을 하고 30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곳,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전공을 계속 새로 바꾸며 학교를 오래 다녀도 큰 지장이 없고 흥미가 없다면 그만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직업 활동이 아니라 대학 등에 진학해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만 25세까지 연장됩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거기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상류층이 아니라면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매달 약 100만 원 가량의 학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학원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약 12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이나 휴학을 하면서 불필요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를 내기 위해 주말 알바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간에 관두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부럽습니다.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직업계와 인문계로 나누어 교육을 하는 바람에 대학 진학 자체에 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없겠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한국에 비교하면 놀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흔한 pc방도 없고 학교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그냥 요리를 하고 쉬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도심 곳곳에 자리한 커다란 공원에 모여 자리를 깔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여름 무더운 날엔 호수에 뛰어들고 강변이나 공원에 그릴을 들고 나와 바비큐를 하는 사람과 맥주를 궤짝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익숙한 풍경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온갖 카페와 식당들이 가득 것 같은 가득할 것 같은 시가지 중심의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녹지가 주는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작은 도시에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되는데 자연과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은 무리해서 차를 사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더 많은 안전한 자전거길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때 녹지가 훼손된다면 길을 돌아가도 좋다며 훼손을 반대합니다.

녹색의 가치를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터득한 지역의 사람들은 그 초록초록함과 여유를 사랑하고 지켜냅니다. 제가 살아왔던 경남 진주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도심 한가운데 강이 흐릅니다. 강변을 따라 넓은 녹지가 있고 자연 환경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 피크닉을 한다는 것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대도시보다는 작은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하고 녹색생활을 하는 친구들 덕에 저도 덩달아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기보다는 심지어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과 가까운 생활은 소비적인 환경 태도도 바꾸게 합니다.

독일에서는 몇 해 전부터 버려지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다시 구출해내 다시 쓰는 게 하나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빵집 마트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유통기한이 임박해 버려지기 직전인 것들을 모아다가 나누는 푸드 셰어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오후 8시쯤이면 푸드 셰어링을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모여 "오늘 버려질 거 있나요." 하며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한 바퀴 돕니다. 주말이면 푸드 셰어링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농장에 가서 버려질 뻔한 수확물을 다 수확해 왔다며 집에 감자가 세 박스 쌓였다고 웃기도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중간하게 남은 기름이나 식초 같은 조미료들을 푸드 셰어링에 올리면 금방 연락이 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누군가가 쓰고 남은 것들을 가득 담아와서는 심 봤다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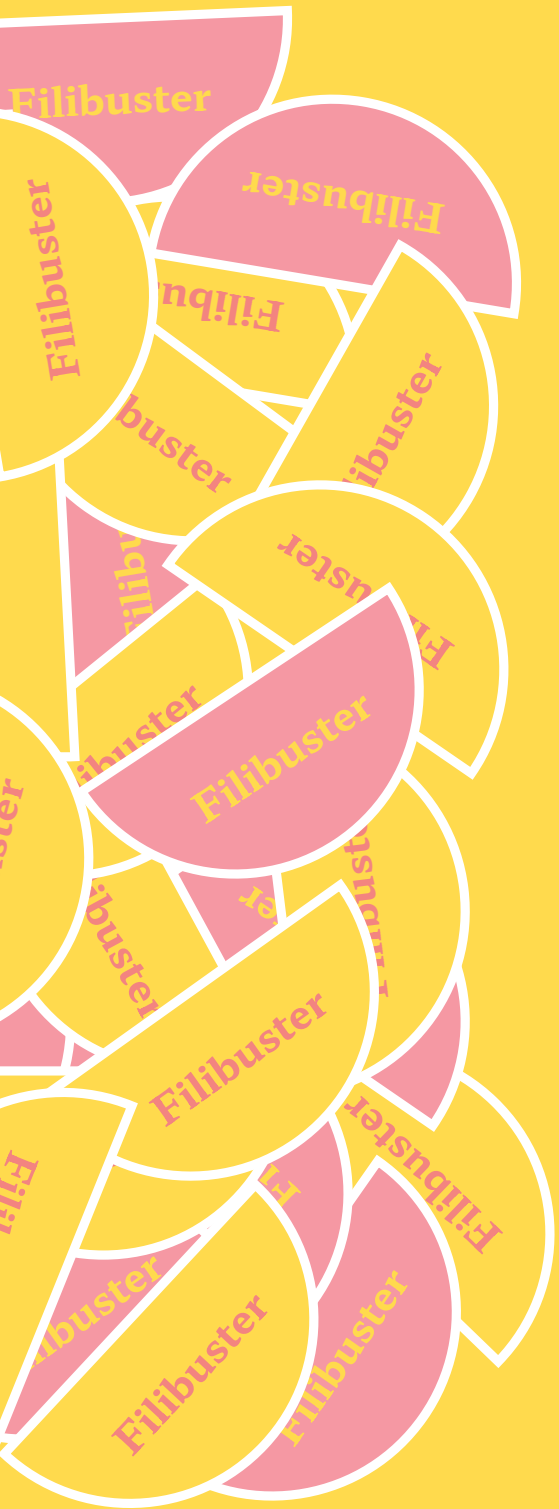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준다면 자신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것들이 청년의 생활 방식 중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청년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에너지를 걱정하고 기후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시장을 초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벼룩시장이 매주 열리고 동네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큽니다. 누군가는 그 옆에서 버스킹을 하고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어 온 브라우니를 팔고 누군가는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쩐지 정겨운 풍경입니다.

내 고향 인생 전부를 살았던 동네에도 이런 활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되고 소비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상상입니다. 물론 여기에 독일에서의 청년의 삶이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행복하다고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각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즐길거

리를 찾고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독일에서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즐길거리를 찾고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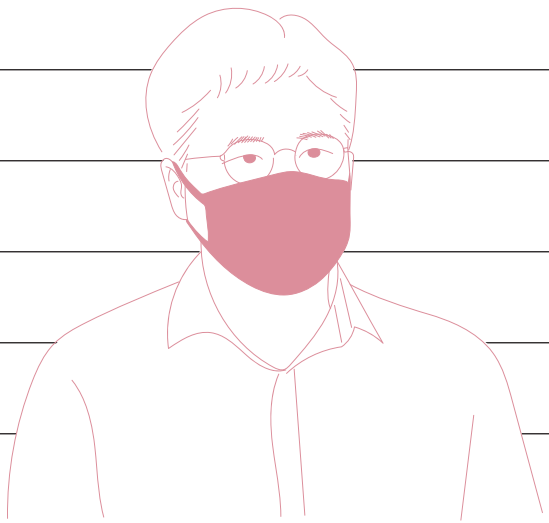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이주

#지역인프라

#일자리

#소외감



최영철

경남/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가 고향인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경남은 제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또 제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익숙합니다. 순대는 소금 보다는 쌈장이고 졸린다고 안 하고 잠 온다고 합니다.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제 짧은 인생의 추억이랄 것도 대부분 경남에서 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남을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일자리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청년은 언제 떠나게 될까요? 제가 경남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적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꿈을 펼치고 싶은 마음에 고향을 떠날 생각을 했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찾는 직종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지만 제가 찾는 일자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역 청년으로서의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제 주변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난 친구, 일자리를 구해 지역을 떠난 친

그런데 저는 이런 경남을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일자리 때문에요.

구, 지방의 소위 꼰대 어른들의 문화가 싫어서 떠나고 싶다고 하는 후배, 한 번뿐인 인생의 젊음을 지방이 아닌 더 많은 사람과 기회가 있는 수도권에서 보내고 싶다는 선배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을 옮기게 된 이유들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그다음이 인프라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한 사람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고 사는 곳을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을 바꿀 고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청년 문제의 전문가라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와 인프라를 늘려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전문가 한 분이 "일자리와 인프라만 늘리면 되는 거냐. 그렇다면 지역 간 인프라 경쟁만 과열될 뿐이다. 지역 문화와 문화 발전과 모임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일까요.

식견이 짧은 저로서는 아직 일자리와 인프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와 제 주변 모두가 일자리에 답답해 하고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떠났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 지역 문화 발전을 누가 시킬 것이며 모임 공동체에 모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문화가 생기고 모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일자리와 인프라이며 그것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화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처음 서울로 상경했을 때 한강에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왜 많이 버렸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이 서울에 다 쓰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 또 세금을 한강에 다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고 소외감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 지역 문화 발전을 누가 시킬 것이며
모임 공동체에 모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 청년들은 같은 거리도 서울에선 지하철 타면 1,250원 내고 20분 만에 가는데 지방 청년들은 8천 원 내고 1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12년 동안 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씩 통학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집 앞에서 항상 1시간 밖에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요. 또 지방 사람들은 병원에 한 번 가려고 하면 날을 잡아야 됩니다. 가고 싶은 사진전이나 스타들의 공연 콘서트 연극부터 뮤지컬까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지방 청년들이 교육과 교통 의료 문화 등 수많은 인프라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그 게임에서는 게임에 참가하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입시와 취업이라는 두 가지 인생의 큰 게임이 마치 오징어 게임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입시와 취업이 과연 평등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 취직하면 된다고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과연 평등했습니까? 저는 능력주의 공정담론이 지배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오징어 게임에 그대로 나타났기에 큰 흥행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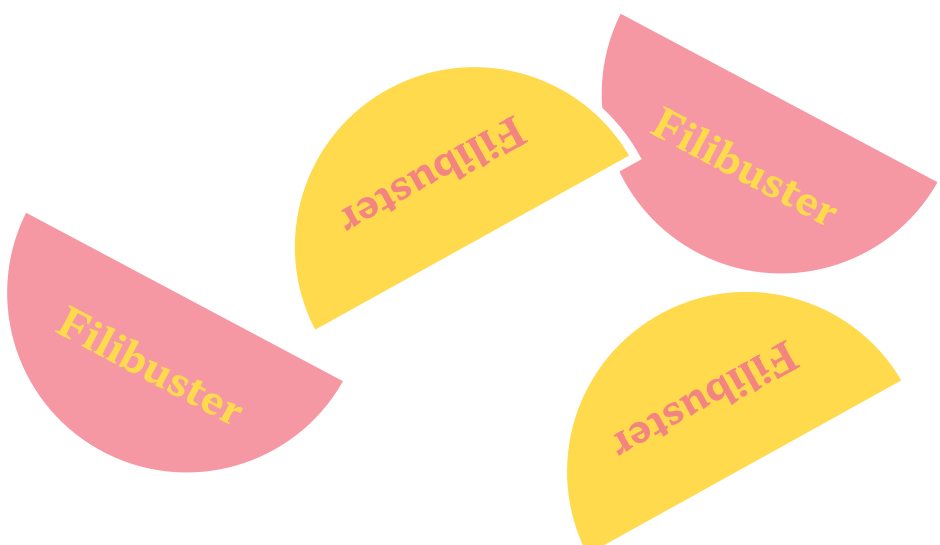
여러분 시골쥐와 서울쥐 이야기를 아십니까? 시골쥐 집에 놀러 간 서울쥐는 시골이 지루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서 시골쥐를 본인의 서울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로 올라온 시골쥐와 서울쥐는 서울쥐의 집에 있는 동안 고양이와 사람에게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죠. 그렇게 시골쥐는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내 집이 제일 최고야.”

하지만 현실에서의 시골쥐들은 고양이와 사람에게 쫓기더라도 직업을 얻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복잡하고 불안한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 때 다들 고향 내려가셨나요? 고향이 주는 편안함, 가족과 함께하고 익숙한 풍경 익숙한 얼굴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지역을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결코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젊음이 느껴지지

않는 대학의 거리, 점점 줄어드는 학교의 책상과 의자들 손님이 끊겨 문을 닫는 가게들, 청년이 떠난 지역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청년으로 발언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시대정신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역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이고 상식입니다.
시골쥐와 서울쥐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힘과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직업교육

#꿈

김빈아

경남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김빈아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해 현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캐릭터 문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청년이지만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교육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육학과에는 '갤럭시 S5'라는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소모임은 교육학 스터디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는데 그 실상은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모임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술만 마시다가 우연히 대학 선배에게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디자인을 해 본 적이 없지만 평소에 손재주도 좋았고 워낙 무언가 뭔가를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때 처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길이었고 이렇게 재밌는 게 세상에 있었다고요.

그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김해에는 디자인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때 경남 청년으로서 가장 많이 아쉬웠고 현타가 왔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가고 주말에는 학원 때문에 부산으로 가니 제가 부산 청년인지 경남 청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당시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서면으로 유학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위해 서면 부산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저뿐

평일에는 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가고 주말에는 학원 때문에 부산으로 가니 제가 부산 청년인지 경남 청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당시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서면으로 유학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이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경남에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부산으로 서면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디자인을 배우고 자격증도 많이 따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후련함, 기쁨, 뿌듯함보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공부하고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모두 취업을 위해 경남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경남을 떠나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경남이라는 지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외로움을 많이 타고 낯을 가리는 저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정든 동네 익숙한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저는 저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사무실이 제 방이고 출퇴근 시간도 없어서 잠옷을 입고 일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주고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디자이너로서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만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께 캐릭터 문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SNS를 활용해 판매를 하다 보니 중고등학생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공인 교육학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창업 #직업교육 #꿈

학교 다닐 땐 항상 '졸업하고 뭐 해 먹고 살지. 졸업하면 어딜 가야 하지. 졸업하면 어디 가서 집 구하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어디에도 가지 않고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저희 집에서 일을 하니 고민 많고 걱정 많던 시절에는 미처 꾸지 못하던 새로운 꿈들도 꾸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창업 청년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나 사무실 등의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기 창업 청년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초기 창업 청년에게는 주거 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가 절실합니다.

둘째 세무 회계 전산 등의 교육 지원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초기 창업 청년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기타 세무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창업 청년들을 위하여 교육 지원과 홍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청년들을 향한 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머물며 천천히 차근차근 지역 청년으로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ilibuster

#다문화

#공정

#차별

김영철

경남

안녕하세요. 오늘 경남청년주간의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청년필리버스터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봉사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아우름'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다문화 가정' 내지 '다문화 청년'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표현하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이주 배경 가정' 내지 '이주 배경 청년'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청년'으로 표현하여 지칭하고자 합니다.

청년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 문제라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계층과 어느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 속한다면 누구나 다양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모두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다문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인문학도 중 한 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꿈 없이 살아가던 저는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한 아동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다문화 가정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될 아이지만 또래 공동체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의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 2.9%였던 것이 3%p 증가하여 5.9%로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다문화 가정 비율은 현재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이주자 인구가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남은 어떠할까요? 경남은 다문화 가정 거주 비율로 봤을 때 6.2%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다문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갈등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의 문제와 다문화 문제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 해결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날개가 모두 작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날개가 모두 움직일 수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이 또한 그렇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 언어, 역사를 포괄하는 사회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들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중점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렸던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아무리 형성되었다고 한들 사회 다수가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선과 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다문화 청소년은 또 다른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년들 그리고 모든 다문화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청년들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청년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과 모두를 위해 많은 청년들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부터 본인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 생각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어지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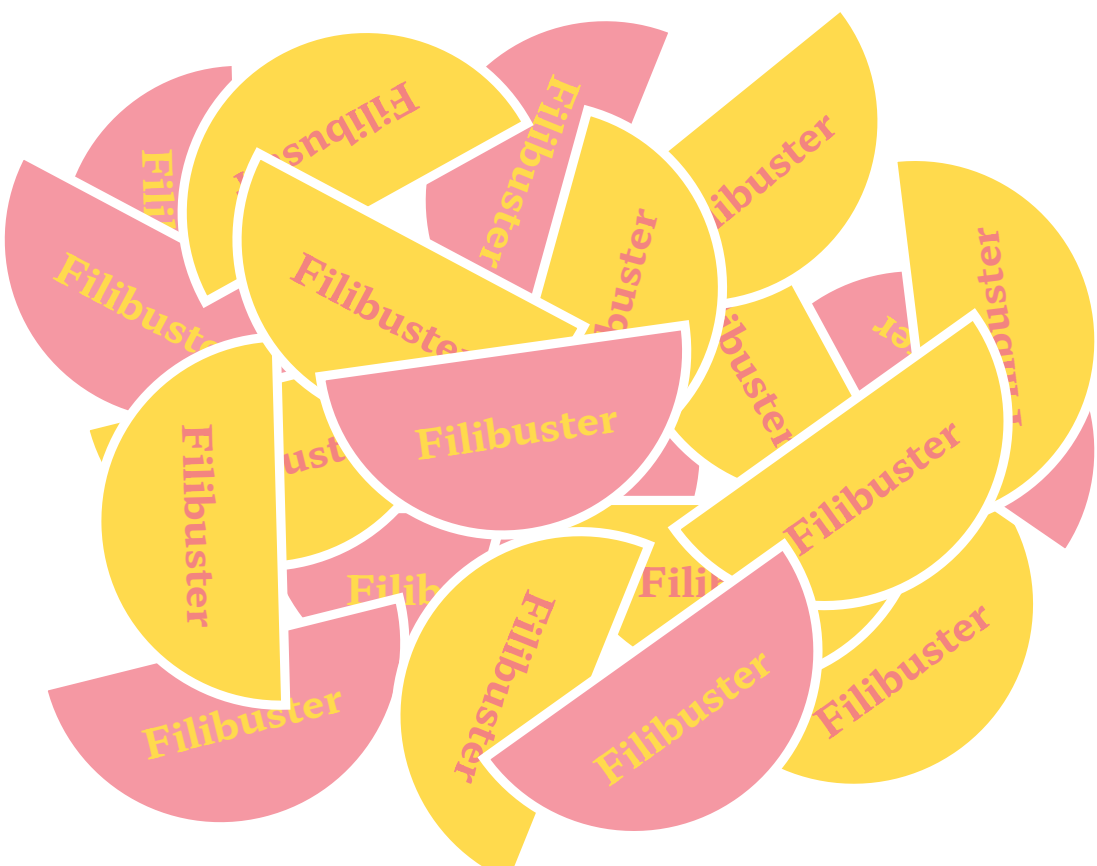
경남 김해에서 만난 다문화 청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문화 청년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중 하나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부터 34세 미만의 시민이라면 모두 우리나라 청년들이라고 인정받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적 시선과 인식이 해결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 외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문제를 다수의 일반 청년이라는 이름의 비-다문화 청년들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청년들 모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 청년 논의를 진행해

경남 김해에서 만난 다문화 청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문화 청년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중 하나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문화

#지역활동가

#자생

#지역문화정책

심아준

경남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사파동에서 생활문화 공간 문호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단체 고래둥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심아준입니다

2018년 공간을 오픈한 이듬해 창원문화인력 양성사업 창문을 수료하면서 문화기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과 형성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전시, 공연, 강연 등 생활 밀접형 문화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재능을 찾고 나눔 하는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공간적 지지와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창원의 청년 문화기회 및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관심사와,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청년은 만 34세더군요.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청년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많은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에 수료한 창원 문화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관심분야인 공간을 활용한 문화기획에 대한 막연함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활동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누적됨에 따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커뮤니티아트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누적됨에 따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커뮤니티아트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이후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초기에 도전했던 지원사업들은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원사업들만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교육 수료 후 홀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채워 넣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자문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문화기획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화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했던 청년들과 [각자도생]이라는 문화기획에 대한 학술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자신의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지원사업도 함께 작성하고 지원까지 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 도, 전국단위 사업까지 가리지 않고 관심 분야에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길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했던 지원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인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체로 인문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던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교육을 받을 때는 여러 분과에서 자유도가 높은 다양한 기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기획을 요구받는 것 같았고 '이런 게 문화기획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활동에 대한 정체성이 잡히지 않았던 시기,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던 과정 중 '나

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올해 초, 도민참여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도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조별 관심 분야에 분류되어 각자의 관심사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안건 중에 지역의 청년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 타지로 나가고 있으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지역의 청년들이 머무를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공간이 없어서일까? 그 이유가 청년들이 고향에서 타지로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인가?' 이 세 가지 고민을 늘 하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게 문화기획인가'에 대한 답은 올라오는 지원사업에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창원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필요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공한 사례를 답습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답안을 잘 쓴 기획안을 실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처음 했던 고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건지.' 당시 [각자도생] 팀원들과 각종 사이트에 올라오는 지원사업에 도전을 하던 중 한 팀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처음엔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만 말했습니다. 지원사업을 도전할수록 반복되는 질문에 더이상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대체 저 많은 지원사업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건지, 이것도 3년차에 접어드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관은 어딘지, 이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지, 내가 할 수는 있는지. 참 무식하게도 도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교육들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도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 좋아 보여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과 문화인력을 위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교육은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

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습니다. 기획서를 쓰는 방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캐어는 없었습니다.

경험과 누적된 시간들이 자연히 해결해 준다곤 하지만 반복된 실패와 포기로 인해 좌절하는 활동가와 청년들을 보았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육 이후 실습을 하기까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원사업이 있는 이유는 성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 실패에 좌절하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청년의 이탈이 공간이라는 유형의 자원 부재 때문일까' 입니다. 저의 경험상 관심 부족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기반 회사를 다닐 때는 몰랐던 다양한 활동가와 공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형의 거점, 공간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에 앞서서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을 마인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6월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되어 기회와 가능성을 찾고 함께 성장하고자 고래둥지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역의 문화기획자로, 활동가로 자생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업공간인 카페이지만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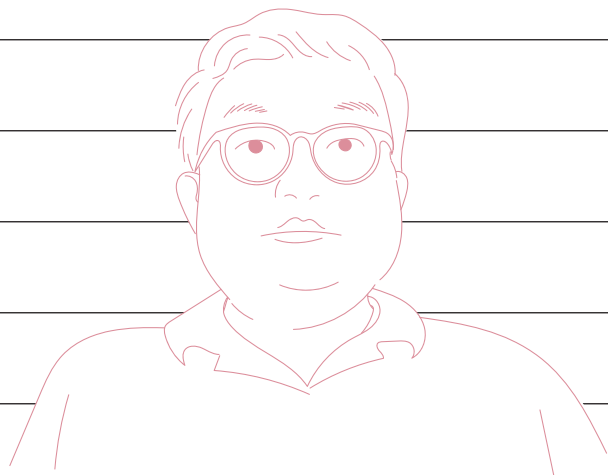
저희 단체의 공식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지지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청년필리버스터 스크립트 10

#지역문화예술

#문화향유 격차

#지역문화정책



박서재

전북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카페 사장입니다. 커피 일을 하고 싶어서 프랑스에서 1년 반 동안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일을 하고 돌아와서 고향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예술을 공부했었습니다. 8년 반 동안 공연 예술 전공으로 영국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은 커피를 팔아서 요새 말로. '내돈내산' 방식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여는 나름의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 지원금이나 따로 공모 사업은 일부러 참여하고 있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문화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공모 사업을 일부러 피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문화예술 공간이 지속 가능하게 견디고 버틸 수 있으면서도, 또한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화 예술 활동은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 다시 함께 모이는 문화 공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필리버스터 참여가 결정되고 원고를 쓰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지역 문화정책의 화가 잠재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원고도 한 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화를 품고 원고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또 창작자

들에게 스스로 감정 이입이 되었다는 말도 되겠죠. 일단 저부터가 지방 출신이고 또 지방대 나오고 또 지금도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한 10여 년을 해외 체류를 하고 돌아왔어도, 젊은 예술가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는 오히려 이들의 현실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느껴지고 또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생계를 움켜쥐고 이들한테 스스로 쓸모를 증명해 보이라면서 마치 경연대회 하듯이 공모 사업과 지원금 정책에 몰아넣는 대한민국의 지역 문화 행정과 그 정책의 실태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면서 찾아왔던 젊은 작가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대신 기획서와 보고서 양식을 들고서 자신이 얼마나 공모 사업과 지원금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정상이라고요? 다시 혈압이 오릅니다. 하기사 뭐 이게 비단 지역과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네, 누가 그러더군요. 글로벌 최첨단 기업들이 우주까지 나가는 세상에 왜 우리 청년들을 골목에 처박아 두지 못해서 안달이냐고요. 우리의 청년작가들에게 우리의 세상과 현실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골목상권이나 부활시키라고 합니다.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지역은 이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최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술가들은 단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지역과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아니 대체 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라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위한 기획서를 써야 되고,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지원금 받는 보고서 양식을 배워야 되고, 자기 돈 내고 미술관도 공연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의 평가 입맛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이 도시를 살리는 동원 예비군이 되어야 되나요? 왜 이들이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나요? 지역의 청년 작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또 대도시의 관객들과는 다른 관객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자신의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비롯한 온갖 지역 사업에 동원되어서 행정의 색깔에 맞춘 전국 공통의 색깔에 획일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항 예술의 상징이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작가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함께 공감할 사회적 이슈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고작 연예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SNS에 올려서 지역 관광과 유동인구를 논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는 관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연예인의 인지도를 이용해 그렇

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과연 그래피티 작가들이 할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외국에서 예술에 관련된 사람으로 오래 살고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저 역시도 동원되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그렇게 핫하다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문화 도시와 도시재생 또 다양한 활동의 현장들과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가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이 더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학문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러한 행정의 사람들이 공부보다 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역의 청년 작가들에게 최대한 넓고 많은 양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히고 좋은 관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품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지역사회는 이러한 작가들을 양성할 전문가도 방법도 심지어 고민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역 정부들의 정책들과 행정가들이 전문가들을 내세워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사실 이런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어느 지역 도시에서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정작 지역 문화 예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략, 발전, 기업가 정신,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를 이용해서 도시 마케팅과 경영과 행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 청년과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 사실 그건 문화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시도와 도전에 따른 실패가 생계의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작자들은 두려움에 생계를 쥐고 흔드는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년작가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간 청년작가들은 그들이 가장 문화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재능을 저당 잡혀서 가장 약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공모 사업과 지원금의 입맛에 맞는 작품에만 몰두하도록 길

들여져 버립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과 전략을 짜는데 작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객이 예술을 향유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지 않게, 창작자가 새로운 시도로 인한 생계 위협이 아니라 관객의 평가를 더 두려워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냉정하고 수준 높은 관객들과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는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를 그렇게 인용하더 그러군요. 저는 그가 말한 '문화는 평범하다'라는 그 주장이 이렇게 문화랑 예술을 하는 지역 청년들로 하여금 작품보다 마케팅에 매달리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모두를 획일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서든 다 똑같도록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 도시의 진정한 목적이었나요?

문화와 예술은 다양성을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그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뚫고 국제적으로 예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관객들이 그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평범한 문화가 그런 사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역이 당신들의 행정과 마케팅으로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도시공간은 모두가 유니크하고 특별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특별함이 그 어설픈 도시 지역 마케팅과 기획과 전략으로 획일화되고 지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역 문화와 청년 예술가들을 더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해외 여행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관객들에게 유명 작가 작품들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도록 초청이라도 하십시오. 차라리 이게 매우 단순하고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지역 문화와 청년 예술가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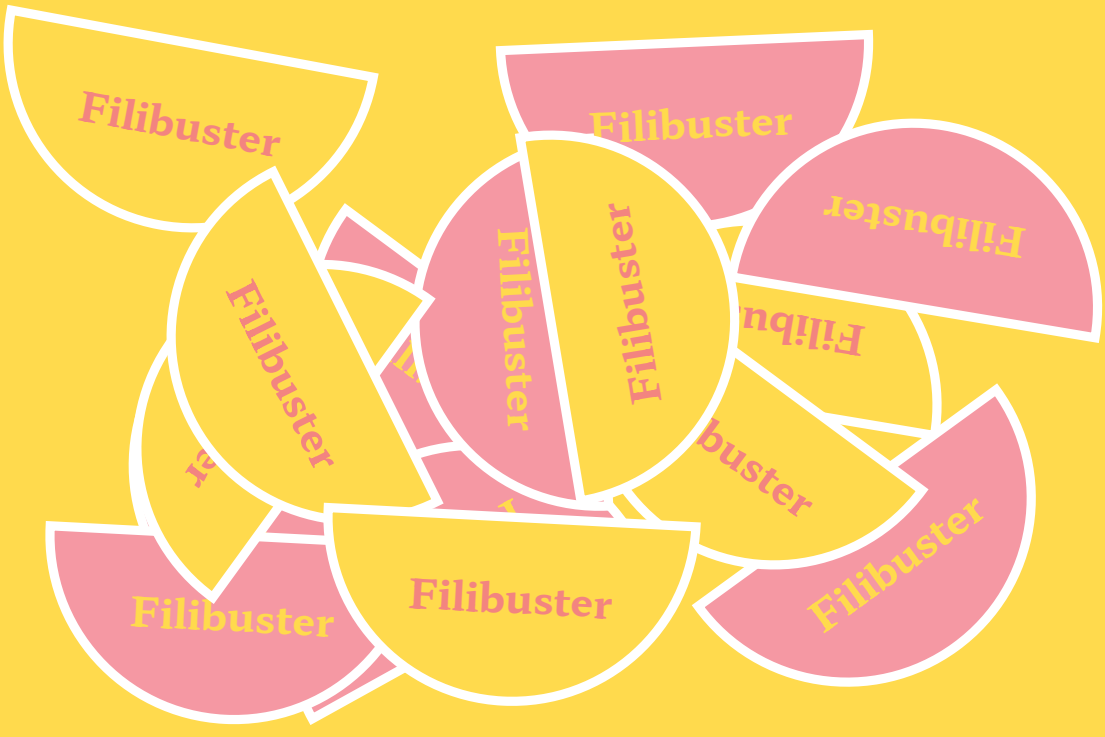
저는 원래 고향으로, 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오면 고향에 들어오면 여전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시대의 논리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들을 억누르고, 새로운 시도들을 폄하하고 오로지 실적, 성과, 경제, 결과로 평가하는 그것이 지역사회의 창작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고향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제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그때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나 보고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커피를 팔아서 자생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사는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시, 작품은 그저 인테리어이고 공연은 그냥 이벤트입니다. 이런 곳으로 청년 예술가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들을 이용할 궁리만 하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골목을 예쁘게 만들고 라운드 테이블에 동원되고 보고서를 화려하게 만드는 데 쓸 도구일 뿐입니다. 청년 예술가들도 하나 둘씩 저항하다가 자기들도 점점 보고서와 지원금의 공모 사업에 빠져들게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문화도시 선정 사업이 전국 모든 지자체 이슈가 된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점점 더 심화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겠죠. 차라리 저는 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지역사회와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역 청년과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
사실 그건 문화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시도와 도
전에 따른 실패가 생계의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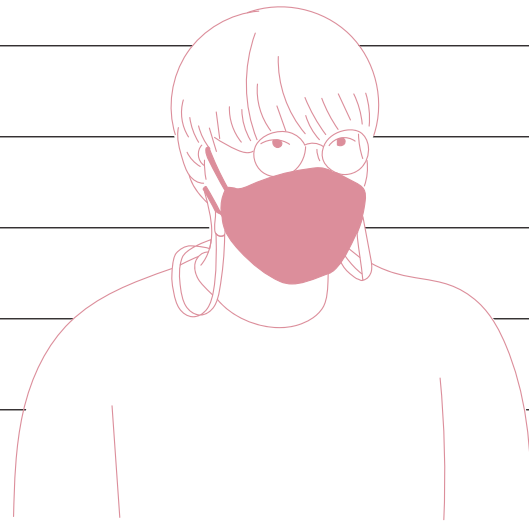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진로

#교육

#미래사회

#변화



강보배

제주

네, 안녕하세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고 얘기할 때 그 제주에서 왔습니다. 강보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주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제주는 답답한 곳, 그리고 떠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꾸고 살았었는데요. 근데 그 소설가를 꿈꾸는 과정 내에서 제주라는 섬은 하는 환경 속에서 그 꿈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을 곳도 없고 선생님들은 공모전 정보를 공유해 주는 정도로 도움을 주는 게 한계였습니다. "차라리 공부해서 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문학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청소년 시절 저에게는 그저 답답함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앞에 김빈아 님께서도 대학생이 돼서야 자기의 진로를 새롭게 찾아보고 고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입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시키고, 그 속에서 자기의 탐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겠지만 지역의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훨씬 더 손해를 봐왔습니다.

제가 섬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나 버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행기는 대중교통이라고 불리지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교육을 받고 오려면 말 그대로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없는 곳이 제주였던 것이죠. 그만큼 배움이 제한됩니다. 그러한 배움들이 제한 된다는 것은 결국엔 다양한 경험과 내용들을 열어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러한 한계가 청년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대부분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고 이는 또 다른 방황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대학 진로취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고민 1위가 졸업 후 진로입니다. 지방의 청년들은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를 찾기 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경험들을 쌓을 기회조차 배제받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지방 청년들한테 절망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진로만 문제일까요? 태어난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교육 또한 받지 못합니다. 교육들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냐 물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들으려면 서울을 가야 돼, 제대로 공부하려면 서울을 가야 돼 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한테 전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난 청년들은 경쟁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 그와 함께 들어드는 교육 비용,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면 들지 않아서 좀 더 절약하고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때로는 더 많은 자극이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청년들이 한계를 맞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관성적 문화는 청년들의 날개를 더 먼저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신 박서재님께서도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역의 청년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새로운 시도들 자체가 무시받는 상황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래사회는 급변하고 있

는데 여전히 지역사회는 기존의 산업을 고수하기 바쁩니다. 대부분 지역 특화라는 명목으로 토착 사업을 중심으로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문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했는데 제주의 전통문화 요소가 없어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꼭 전통 문화만 의미하나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자원을 마련해 기획했던 행사들을 열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대기업이 후원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의 시도와 방법이 더 옳았던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혹시 청년들의 도전에 또 다른 장애벽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도전하지 않고 도전 의식이 없고 공무원만 하려고 한다,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다, 눈만 높아서 중소기업 같은 데 일을 하지도 않는다'라며 타박을 하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정작 이 타박이 정말일까요? 이 타박의 이면에는 자식들한테는 지역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식은 지역에서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익명성이 강한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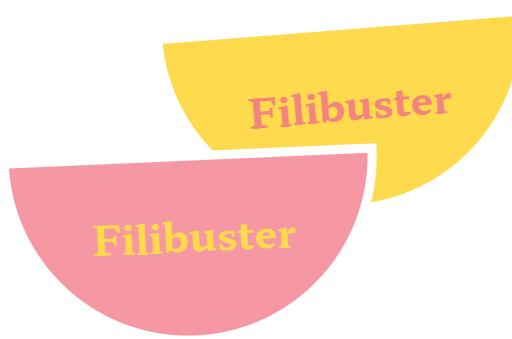
그보다 더한 것은 무언가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며, 계속 공무원만 준비하려고 하는 주변의 인식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이를 이야기할 수 없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더는 대기업이 중심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현재 수많은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공채 시장을 상시 채용으로 바꾸고, 경력직을 중심으로 채용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아니 지역의 청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역을 가면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사회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청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

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세대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즐기고 그 속에 어우러지는 것이 타고날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감을 투정이라고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가장 빠르게 시장을 뛰어다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이들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것도 이들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미래세대의 감은 단순한 감이 아니고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떳떳할 수 있으려면 미래를 그리는 순간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이야기는 투쟁 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될 것입니다.

지역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왜 무시받아야 합니까. 청년들이 여기서 이룰 수 없어 서울로 떠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역에서 무언가 시도할 수 있어야만, 그저 일자리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길들을 열고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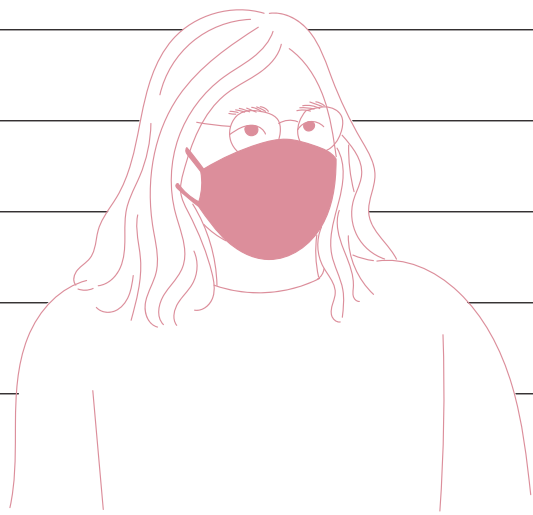
지역을 가면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일경험사업

#지역청년정책



김다정

광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정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 경기도 광주인 줄 아시는데요. 광주광역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 일자리인데요.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 어떤 타격을 급격히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19의 정말 무서운 점은 그 타격의 정도가 철저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에서 가장 불리한 집단 중 하나는 바로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청년은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런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 충격을 더 오래 더 크게 받는데요. 청년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주로 위치해 있거나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후 잃어버린 세대 라고도 불리는 청년들의 노동 현장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과연 청년 일자리 올바른 해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 경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광주에서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드림', '일경험드림'이라는 이름의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일경험 드림 사업입니다. 간단히 소개 드리자면 일경험 드림 사업은 주 25시간, 총 5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광주시 생활임금 준하는 135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참여 사업장들의 청년을 . 무작위로 매칭해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인데요.

광주시의 청년 정책 예산이 총 1680억 정도예요. 그런데 그중에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이라고 분류되는 정책은 총 27건으로 346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경 드림 사업은 100억대의 예산 규모로 청년 정책 중에 가장 큰 예산 파이를 자랑하는데요. 일경험드림 사업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광주에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 경험 사업은 정말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갭이어 기간에 있는 청년에게 적당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행기 및 노동시장 진입 준비 기간에 있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다라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고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사업 참여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보통 짧으면 최소 한 5개월에서 2년 정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형태의 .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봤자 2년이라는 겁니다. 5개월에서 2년은 일을 경험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아마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매칭된 사업장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지 이거를 확인하는 데 아마 그 시간을 거의 다 쏟을 겁니다. 짧은 경험 기간은 사실 사업장으로 하여금 청년을 금방 떠날 사람, 계약 끝나면 나갈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며, 일시적으로 인건비와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경험 지원사업의 두 번째 단점은요. 이 지원사업이 끝난 후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사후 케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책이기는 하는데요. 이 일경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실업률이 떨어져 단기간의 고용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령 배정되는 청년의 직무와 성향을 사업장에서 좀 제대로 파악하고 유형별로 사업장 매치가 적절한지, 직무와 현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막상 청년이 와도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담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년들 노동상담도 하는데요.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상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직장내 괴롭힘으로 많이 오십니다. 매칭된 사업장에서 그 기간 만큼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장을 한번 교체해 주는 걸로 거의 끝이 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일 경험 기간 중에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광주도 이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중에 NGO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디에 배치되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담당자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여기서 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즉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보통 인건비를 기관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청년을 더욱더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거나 중간에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을 때 청년은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이지만 사실은 기업 주도형 일자리 사업인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청년으로 참여해 보기도 했고요. 기업 담당자로도 이 사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모인 간담회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 4~50대 담당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업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오면 좀 창의적인 생각 그런 걸 많이 할 줄 알았다.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우리 사업장에 매칭되는 청년의 역사의

식이 부족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5.18 국립묘지에 함께 참배를 간다.” 이런 말씀을 사업 피드백으로 주십니다. 그런 기관들은 사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 겁니다. 지금 현 2030 세대의 특성과 배정된 청년의 직무와 역량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일자리 지원 사업 단순 노무에 그치는 일들을 주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청년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정책으로만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특히 이런 사업의 경우는 청년들이 실제 일에 현장에서 마주하는 약간의 헛헛함이 존재합니다. 최근 문제가 나오고 있는 청년 뉴딜 일자리와 같은 공공근로 일자리들은 질적인 면에서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을 위의 이유들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질 낮은 일자리에 비정규직 양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30조 5천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들 중 상당 부분이 직접 일자리 정책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들은 중요한 고용대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정규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한계가 명확히 보입니다.

저는 일단 청년 정책의 설계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층의 고용 폭이나 실업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되게 이 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할 의지가 있고, 되게 활력 있고, 넘어져도 자꾸 일어서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이 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고, 혹은 일할 의지가 없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고용부의 실업률이 비자발적이라는 점에 좀 주목해야 하고요. 왜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계속 밀려나고 밀려나다 왜 구직 단념이나 포기에까지 이르나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계속 실업률을 해소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그걸 그거를 예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는 긴급 대책만으로 청년정책이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대안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충분한 사업 참여 기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단기적인 노동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 일 경험으로서 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 5개월에서 2년은 조금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자리 사업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병행되어 일 경험 사업이 단순히 몇 개월 인력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매칭되는 청년은 일터의 동료라고 인식하기보다 그냥 파견 나온 직원, 혹은 잉여 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시선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일자리 사업을 통과한 청년들에 대한 에프터 케어,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다시 또 불안정한 이행기 시기로 접어드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광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3천여 명 정도가 현재까지 광주의 일경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사업이 끝나고 지금 삶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정책의 앞과 뒤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영역의 인건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이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시도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직무와 청년들의 참여를 연결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청년센터

#인구감소

#일자리

최종환

울산

2021년 경남청년주간을 맞이해 지역청년이 어떤 사회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내보기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울산시 청년센터의 최종환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지났지만 그동안 청년센터를 운영하며 느꼈던 고민을 이야기해 보고 제 나름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광역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센터를 운영할 때는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인 상황과 이슈보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청년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 청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보다 지금 청년이라는 세대가 사회적 위기라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부터 청년정책네트워크 1기 활동까지 청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오만함이 깨지면서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이라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아직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청년 인구 유출을 주제로 요긴하게 이번 필리버스터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인구의 유출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산업에서 부정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실

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유출 반응이 발생하지만 청년과 관련된 인구 유출은 지역 산업의 충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인프라나 삶의 환경이 좋거나 풍부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 경기 불황에서는 고용 상황이 덜 나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 외환위기로부터 대량 실업이 발생한 1998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은 장차 지역의 미래와 세금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유출은 모든 지역의 화두입니다. 얼마 전 9월 대구시에서는 대구 청년 유출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의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해당 행사의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의 청년 순유출이 15년 만에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를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보다 한 달 빠른 8월에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울산 청년 유출이 심각하며 10년 동안 7만 6천 명이 떠났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울산의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층의 탈 울산 사유로는 직업이 전체 절반에 달했고, 가족 교육 주택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일자리 분야 문화 여가 분야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울산과 광역 단위의 노잼 도시의 타이틀로 쌍두마차를 끌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그보다 한 달 빠른 7월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년 유출 심각. 대전시 청년도시 타이틀 무색.' 최근 10년간 3만 1천 명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의 2030 세대가 10년 전 46만 명에서 지난 6월 기준 40만 명으로 크게 감소됐다 매년 6천여 명이 청년 세대가 대전을 떠났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 청년정책 관계자는 "서울 경기 수도권과 대전이 가깝고 세종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도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특화 도시인 청년 내일 마을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내일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구 울산 대전. 네 이렇게 대구도 빠져나가고 울산도 빠져나가고 대전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간 청년들이 왜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된 기사나 보도 자료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1분기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2천 명, 세종시에는 956명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입 인구 중 3/4은 청년이 차지했다는 사실에 지방 인구의 유출이 청년층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 유출은 범국가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울산시나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일자리 다양성을 비롯한 정주 환경이 부족해 새로운 일자리나 정주 환경 생활 인프라를 원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있는 문제로 바라보아야지, 이를 행정이 잘못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에 청년이 빠져나가는 것을 왜 경남 청년센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활동가들이 왜 해결하지 않고 있냐고 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기사에서 보듯이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대전은 청년 특화 도시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센터를 만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전시 청년센터를 소관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 유출은 범국가적인 문제이지
단순히 울산시나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청년 정책과의 2021년에 본 예산은 171억 원입니다. 그중에 청년내일센터가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공간인 3개소의 운영비가 약 1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청년센터는 센터의 고유 목적인 정책 전달체계와 홍보 체계, 서비스 기능이 먼저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이번 기회에 잠시 하고 싶습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생 합계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기준치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등록 상 주민등록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범국가적인 인구 소멸의 시작이 발생하면서 앞으로는 청년 인구의 수도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인데, 이를 타 지역의 청년 뺏기, 주민등록 인구 찾기, 주소 전입 유도 등 단편적이고 소모적인 인구 확보가 아니라 지역 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을 떠난 청년 또는 타 지역의 청년이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치, 유입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곧 제로섬 게임으로 옆 동네의 청년을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또는 청년의 유출을 막았으니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난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오고 싶게끔 청년들의 이행기 과정이 있어 인생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 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떠안을 각오를 하고 청년 인구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기로 이행 과정 중 첫 번째 이주 이벤트는 학교에 진학,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진학과 취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20년 또는 30년 과정에서 몇 안 되는 큰 이벤트이자 복잡하고 신중한 결정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판교 테크노밸리나 구로디지털단지 상암 DMC와 같은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를 유치해 달라는 이야기나 현대중공업 본사 재이전과 같은 대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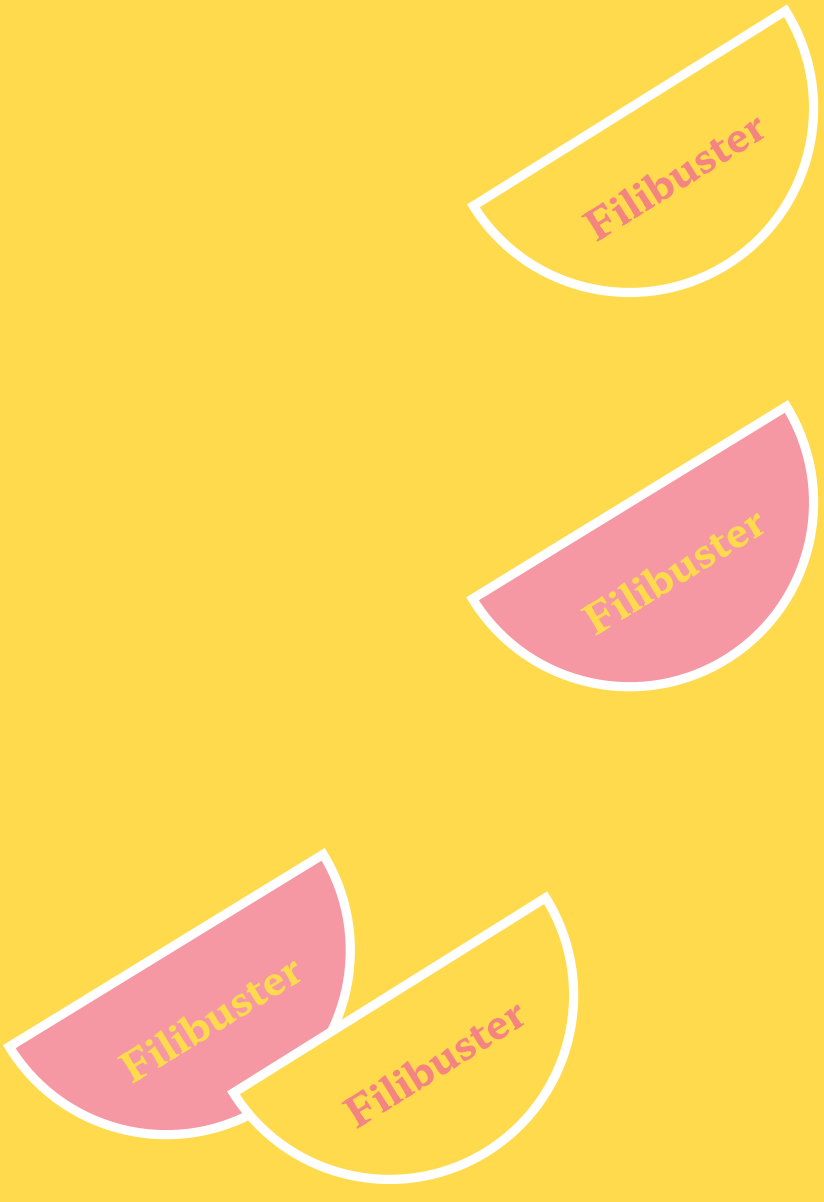
청년이 유출되면 지역 경제의 역량이 취약해지고 인적 인프라가 취약해지니 지역에 있는 기업도 수도권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청년들 인생에 있어 몇 명, 몇 번의 큰 이벤트를 결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기에 이에 따른 공포감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나 청년 유출을 걱정하며, 일자리의 다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누구

나 알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 말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정부에는 저출산 고령사회법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 조례나 인구 증가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각 지역에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 정착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을 떠안아 줄 수 있기 위한 입법적 대응을 위해 '청년 유입과 정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년 정착을 위한 고민과 함께 지역이 어떻게 다가오는 청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정주를 위한 법률도 청년기본법 상에는 없기 때문에 청년 활동진흥법과 더불어서 해당 법안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지역의 미래가 없고 대학이 없어 청년이 떠났다는 청년이 떠나서 도시가 심각하다는 프레임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살기 위해 큰 결심을 가지고 도전 하러 다가오는 청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답이 없는 문제에 또 하나의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 발언을 계기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이끌지 말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일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들기 위해 움직임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유입과 정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청년 정착을 위한 고민과 함께 지역이 어떻게 다가오는 청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일자리

#거버넌스

#상생형지역일자리

김설

광주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 멀리 광주에서 이 경남까지 운전을 해서 도착을 한, 이름이 예쁜 김설이라고 합니다.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지역이나 청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광주에서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은 시장의 역할로만 일자리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관점 아래에서 지금까지 일자리는 예를 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서, 감세 혜택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정말 많은 지원들, 한마디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일자리 정책들이 줄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계속하는데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지금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적정하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룰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의 산업과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모델로서, 시민들이 개입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산업구조의 문제들 가운데 적어도 이만큼은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제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4대 의제로 원하청 관계 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기업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매예약을 했던 캐스퍼라는 경형 SUV 차량이 이 기업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1호로 선정이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군산, 경남, 구미, 포항 등등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글로벌모스터의 경우 170명을 뽑는데 거의 7~8천 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00:1이 넘은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일자리의 숫자 자체가 모자란 것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볼 수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실은, 상생형 일자리의 방점은 상생과 사회적 대화에 찍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자리로 천 개를 만들겠다', '고용지표를 어떤 개선해 내겠다'처럼 물리적 숫자로서의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광주를 예로 들자면, 현대차와의 합작을 통해서 공장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왔던 일련의 고민들이 대체 어디 가버린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정임금이라는 의제는 사회적 임금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임금을 보전하겠다 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재직자의 임금은 기존의 완성차 공장의 절반 수준인 3천5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왔던 일련의 고민들이 대체 어디 가버린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4일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정 노동시간 의제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주 44시간으로 정해졌고요. 원하청의 굉장히 불공정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운영을 스스로 해나가자는 새로운 모습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어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일자리 정책도 나오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청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과연 그 목소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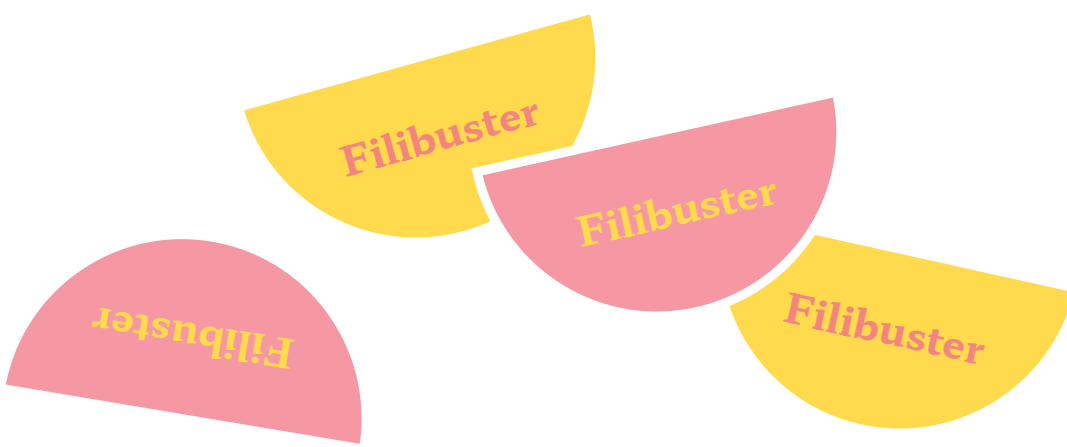
아까 말했던 대부분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즉 ○○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완성차나 반도체,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품을 생산해내는 대규모의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딱 광주글로벌모터스만 생각을 해도 광주 도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빛그린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으면은 통근할 수 없는 황량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형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마지 못해서 뭔가 찾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상상과 실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노사 상생 모델이 처음 시도, 실험되는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른 일자리 또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지와 자신감을 남겼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가 완성차 공장이었다면, 광주형 일자리 2호는 도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네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다양한 주체들, 고민들과 함께 모여져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마 경남에서도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은 곧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기 쉬운데요. 이때 일자리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 속에서 터전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상상과 실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유출

#일자리

#지방대

#활동

김민성

대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김민성입니다. 노잼도시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꿀잼인 대전에서 왔습니다.

저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맛집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과 대학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폐교대학이라는 콘텐츠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폐교대학이라고 치시면 여러 콘텐츠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지역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입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대학이 사라지니까 아예 황폐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학이 폐교가 되는 게 대학생들의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 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 사회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 참여기구나 아니면 이런 행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한 대화가 항상 오가는데요. 어떠한 것을 해야 지역의 청년들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문제의 답은 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평등을 심화하는 승자 독식의 교육 재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비뉴스의 심층 기획 '지방대 위기와 혁신' 기획기사에서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재정 지원 사업비 중 SKY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그마치 17.9%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 194만 명 중 5% 정도만을 차지하는 3개의 대학이 전체 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죠.

그리고 나아가서 매 년도 대학별 평균 재정 지원비를 보면 서울대는 3948억, 연세대는 2040억, 고려대는 1522억을 지원받는 반면, 나머지 대학은 평균 193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전국대학 평균의 20배 가까이, 연고대는 7배에서 10배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본 기사에서 한 지방대 교수는 "온 국민의 머릿속에 1등부터 꼴등까지 전국 대학의 서열이 매겨진 상황에서, 정부마저 그 서열 구조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표를 통해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부 지원이 차별적이고 10년간 등록금도 동결되면서 상당수 대학의 교육 현장이 정말 후진국 수준으로 열악하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학과만 해도 1년 운영 예산이 65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A4용지나 프린터 토너 사기도 빠듯해 조교가 복사 용지를 빌리러 다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 혁신을 이루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나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고 승자 독식의 교육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지방의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 194만 명 중 5% 정도만을 차지하는 3개의 대학이 전체 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다

둘째,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서, 그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지역 및 지역 행정과 긴밀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대전의 참여기구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대전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36명에게 직접 물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대전 지역의 학생들에게 국한된 활동이지만 다른 지역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역에 남고 싶다고 얘기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거의 한 8~90%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남고 싶은 이유는 대전은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엄청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 대전은 집값도 싸고 해서, 여러 모로 살기 괜찮은 도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떠날 예정이라는 학생도 많았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공기업 위주의 대전의 일자리 실태. 예를 들어, 예체능, 저도 인문계열입니다. 제가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일자리 질 문제로 대전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화 인프라가 영화관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즐길 곳은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좀 더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적어서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오늘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과 앞에서 발언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6명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보다 그래도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청년이 많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남고 싶지만 일자리나 아니면 문화적 측면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대학에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지방에 청년이 유입이 되는 경로, 효율적이고 매년 유입이 되는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오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행정이 대학생의 졸업 후 정주 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책임 소재입니다. 여러분, 대학 정책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역에서는 대학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어디 있을까요? 세종에 있습니다. 경남에서 대학 문제가 터지면 세종에서 와야겠죠. 물리적 거리도 멀지만 그렇게 책임 소재가 지역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대학에 관련된 지역과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역 일자리의 다양성 문제, 문화 다양성 문제도 대학을 중심으로 바꾼다면은 저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에는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학과만 따지더라도, 공대, 인문대, 의학계열, 생활과학계열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동아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은, 이분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답이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다양한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방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정책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타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창업을 하면 주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창업 지원금 사업도 있고,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등도 지역에 청년들을 유치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는 청년들은 잡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른 데에 있는 청년들을 붙잡을 생각을 할까요?

청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지역에 유입이 됩니다. 뭐로? 대학으로. 그래서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문화와 일자리를 꽃 피우는 여러 실험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부에서만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업무를 지방에 과감히 이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하는 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 지역 행정과 대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그래서 지역에 돈이 돌면은, 둘째, 그 재정을 활용해 대학과 지역이 긴밀하게 연계

하여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늘어난다면, 매년 대학에 유입되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여러분 폐교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다 비리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과 대학과의 관계를 얘기하러 나왔으니,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고, 4년제 대학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의 문제를 제가 오늘 이 말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그동안 저의 문제 인식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대학이 답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만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업무를 지방에 과감히 이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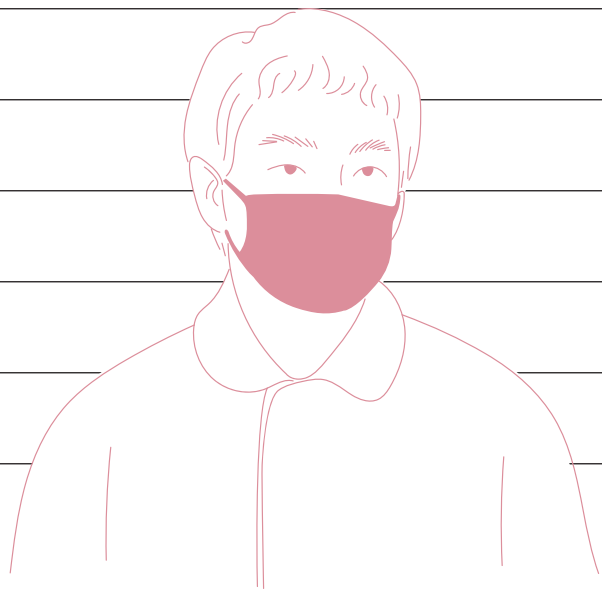
지역청년필리버스터 스크립트 16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의삶

#청년고용정책



천현우

경남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 용접하고 밤에 글을 쓰는 천현우라고 합니다. 유년기 이후 줄곧 마산에서 살았고, 공고-전문대-공장이라는 전형적인 지방 블루칼라 루트를 탄 노동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사실 오랫동안 당연하게 고민해 왔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제조업과 관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조업 노동자들이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면 아직도 먹고 살 만하다는 식으로요.

제가 이직 때문에 비록 오래 일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달 정도 어떤 재벌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조업치고 드물게 장기 근속한 2030 남성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몇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기술교육원에서 신입을 계속 수급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1 이하일 정도로 꽤 높은 편이고 공장 치고 드물게 교통 중심지에 있어서 접근 또한 용이하고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에 최대 잔업이 30분으로 고정되어 있어, 워라밸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꽤 매력 있는 직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공장 중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까보면, 하청과 원청 사이 어마어마한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당장 하청 직원 대다수가 최저 시급을 받고 1년 뒤 상여금 200% 포함해서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선에서 연봉을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초봉이 4400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 선부터 1.8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근속 연수가 쌓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사내하청은 최저시급에서 임금이 계속 돌거든요. 덕분에 정규직 달기 위해서 계속 이 꽉 깨물고 미생 생활을 버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하청에서 오래 일한들 완생의 꿈을 이룰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직무에 따라서 전환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노동은 고되고 임금은 최저에서 머무는 판에 정규직이라는 낚싯줄은 기막히게 거리 조절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다른 기업. 대기업 사내하청 상태는 더합니다. 위 업체도 상당히 악덕하죠, 그런데 다른 회사에 비하면 정말 선녀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겪은 회사 현실만 말씀드리자면 A중공업은 도급하고 분사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정규직이 하청 직원이 되고는 했고요. 또, 2011년에 제가 일했던 곳인데 여기가 최저임금법이 안 지켜졌고요. 제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발목에, 이걸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B중공업 역시 현장 정규직 채용을 안 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면 아마 18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나마 있는 하청 일자리는 어떻게 했냐하면은 정규직들이 들어와서 인소싱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청업체 사람들이 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C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최장 9개월씩만 일을 시키고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버립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마저 나와버리면은 나이가 30대 중반쯤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사내 하청의 문마저 닫혀버립니다. 그런 청년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하냐면요. 이름뿐인 강소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으로 직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쪽으로 와버리면, 건실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이라는 게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금방 알게 돼요.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행태도 그야말로 가관이거든요.

창원 3대 악덕 기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제조업 중견기업이 있는데요. 여기 잡플래닛 평점이 1.5, 1.6,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곳을 면접가 본 적이 있어요. 계약서 쓰기 전에부터 가관이었는데, 기량 테스트를 먼저 통과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최저시급을 제시를 하고 주 52시간 제한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60시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량이 오르면 시급도 오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뻔한 소리인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물론 한 500원 올려주긴 하는

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고 장기 근속자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버리면 맨날 채용 공고가 뜨는 공장 알바 수준의 직장으로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B중공업 사내하청에서 2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양산으로 왔다가 다시 창원으로 돌아왔어요. 그전에 3일 정도 일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돈도 안 받고 나온 회사가 있었는데요. 시스템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종업원들이 30명쯤 되는 회사였는데, 사장님이 현장에서 일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고요. 첫날 온 직원을 8시에 일 시켜서 9시까지 잔업을 시키고 작업복은 먼저 온 사람이 하루 일하다가 추노해서 남은 옷을 주고요. 화장실 물은 내려가지 않고 불이 안 들어와서 재난 영화 벙커 같은 꼴이었어요.

그나마 여기를 나와가지고 다음 회사에서 2년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박스 깔고 쉬고 쉬고요.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땀내가 난 채로 그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직장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금방 권고사직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최하층은 인프라랑 안정이 다 사라진 무간지옥입니다. 저학력, 저소득이 겹치고 육체 노동과 잔업에 시달리는 제조업 2030은 올라갈 사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삶에서 나아지려면 기술이든 기능이든 발전시켜야 하는데, 고급 기량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신입을 안 뽑고요. 지방에서 받는 지역 교육 퀄리티는 형편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 도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나마 목숨 걸 만한 자격증조차, 이제 약발이 닳았습니다. 한때 실업계의 동아줄로, 이제 전기 기사랑 전기 공사 기사가 '쌍기사'라는 하나의 희망으로 꼽혔는데, 이게 너무 흔해져가지고 이제 별 의미

제조업 최하층은 인프라랑 안정이 다 사라진 무간지옥입니다.
저학력, 저소득이 겹치고 육체 노동과 잔업에 시달리는
제조업 2030은 올라갈 사다리가 없습니다.

가 없는 겁니다. 용접자격증 같은 경우, 용접 최고 자격증이 기능장 자격증 인데요. 이거 더하면 수당 딱 5만 원 더 줍니다. 자격증도 이제 실력을 보증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노력을 해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허탈감에 빠져요. 이 굴레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일단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연결할 정책 세 가지와 각각의 단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내일배움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 취지를 국민 스스로 직업 개발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제도의 최대 단점이 뭐냐 하면은, 국민지원 학원의 교육 질이 사설 학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학원은 전부 서울, 경기권에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창원시에서는 스마트 산단을 도입을 하겠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변화에 맞춘 지역 교육을 받을 곳은 없습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의 취업 연계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50% 취업률에 10명 중 4명이 퇴사를 한대요.

이 다음에 말씀드릴 제도는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원론부터 말하자면, 제도 취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청년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청년층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채다 기간 채우고 나면은, 친구들이 퇴사를 그대로 해버려요. 계속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모아둔 공제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상화폐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버립니다. 간단한 이유인데 이게 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곳에서 제조업 회사가 근속하기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기업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2년만 일 시키고, 2년만 딱 붙잡아두려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종잣돈 마련 장기 알바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인력난 해소보다는 장기 근속 아니면 최소한 경력 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조업 다니는 친구들 집안 사정 널널한 사람들 아예 없거든요. 푼푼이 모아서 자산형성을 해야 되는데, 공제금 받은 다음에 다 가상화폐로 까먹어버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죠.

그다음은 일학습 병행제인데 이게 일학습 병행제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건 IPP형이라고 4년제 대학 대상으로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인터넷에 잘 안 나오는 공동훈련센터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면에다가 써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 가져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일 학습 경영제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직업 교육이 기업과 국가 간 고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는 이원 제도 안에서 졸업과 함께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가 만들어진다. 그럼 한국의 일 학습 경영제는 왜 이런 모델이 될 수 없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발전시켜 나갈 인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던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제도 당사자들에게서 괜히 했다는 후기를 자주 들었다. 사실상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고 신청을 했을 뿐, 제도를 실현할 준비는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배우는 일과 공부가 따로 노는 건 기본이고, 회사는 실무를 빙자해 일시키기 바빴고, 주경야독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얻은 학위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제가 본 바로는 현재 제조업 현장직에서 일병행학습제는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두 제도 역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쪽이 더 심각하고요.

각각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큰 개편안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뿌리 산업에 한정해서라도 세 가지 정책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취업 알선을 통해서 일학습 병행제 시행 기업을 알아봐주고, 내일채움공제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에 정책을 담아버리면은 내일배움카드의 낮은 취업률을 보완할 수가 있고, 내일채움공제로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퇴사율 감소를 도모할 수 있고,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돈 빼고 무의미한 2년을 보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 내에서 정부가 교육기관과 업체를 잘 선정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제도는 현금 지원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엮고, 엮어 가지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진로 개선에 개입하였으면 합니다.

어떤 직종이 안 그렇겠냐만은 지방 제조업과 현장 또한 사양 산업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건비 출혈 경쟁을 통해서 재벌과 그 부근의 하청업체 사장만 배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력도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면서 나이만 먹어 갑니다. 저 역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라든가 산재 위험도 중대한 문제지만, 무엇보다 임금 상승 계단부터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일도 제 자리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정부가 청년 제조업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직 시장은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이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만 가질 수 있는 연공급제와 고용 보장의 강력한 상호 보장 관계에서 나옵니다. 근속만 채우면 돈을 더 받는데 자리는 계속 지켜지니까, 발전하지 않아도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바꿔야 됩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도 내 일에 충실하면 내 삶도 같이 나아진다라는 신호를 꾸준히 줘야 됩니다. 야심만만한 청년들을 위해서 직업교육과 전공 지식을 강화할 바탕을 마련해 주고, 경쟁할 마음이 없고 꾸준히 일만 해도 만족하는 청년들, 그런 다른 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시간의 조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최장 52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인 제조업 현장에서 워라밸이나 이직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기업마다 요구 직무 능력이 높아진 현재 들어가지고는 더더욱 52시간제는 말이 안 되고요.

비록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대상층을 지방의 제조업 2030 남성 청년들로 한정을 했지만, 사실 전체 청년 노동 문제로 봐도 큰 모순은 없을 겁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합리를 제거하려면 먼저 정부가 합리적인 지점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제조업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웨이즈

#젊치인

#정치인

#지방의회

박혜민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뉴웨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뉴웨이즈는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젊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로 만 39세 이하의 젊은 정치인들이 실력과 세력을 키우고 유권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라도 더 젊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뉴웨이즈는 내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의 젊치인이 전체 20% 이상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원이 혹시 무엇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체 4,016명의 당선자 중 2,927명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수의 의사결정권자이면서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깝습니다.

저희가 20%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 목표가 좀 높게 느껴지실지 아니면 너무 택도 없게 낮은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 당선자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전체 당선자 4,016명 중에서 238명으로 약 6%였습니다. 73%는 50세 이상이었고 또 73%는 남성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4,016명 중에 238명이 만 39세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만 따지면 만 39세 이하가 0명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는 광역의원 혹은 기초의원에만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 238명 안에서도 192명이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의회 중심으로만 역할을 맡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의원이 그래도 192명인데 그럼 우리 지역구에도 있을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체 226개 기초의회 중에 만 39세 이하의 당선자가 배출된 지역구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은 만 39세 이하의 젊은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경남 지역은 어떤지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의 당선자는 342명이었습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는 13명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만 39세 이하가 없었습니다. 전체의 3.8%만이 만 39세 이하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인 6%에 비교해서도 더 적습니다. 이 13명 중 9명이 기초의원 당선자였는데요. 지금은 재보궐 선거를 거쳐서 총 10명의 만 39세 이하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거창군을 제외하고는 만 39세 이하의 기초 의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39세 이하 당선자 10명 중에서 여성은 단 한 명입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발언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문제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성을 깨닫게 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느끼는 어떤 답답함에서 사실 뉴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왜, 다른 의사결정권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작년 2020년을 보내면서, 총선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실 저는 20대 여성으로서 정치에 대한 지겨움이 턱끝까지 올라왔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의 당선자는 342명이었습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는 13명이었고요.

그때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혹은 내 또래들이 경험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함께 중요하게 보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매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 고민과 주장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삶의 맥락, 경험, 우선순위를 이미 알고 있다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지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이라는 이야기들에 얼마나 다양한 청년들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계속 호명하는 것은 청년의 문제를 청년 정치나 청년 문제에만 국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청년 정치, 청년 정책에 대한 담론과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다양한 관점,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더 다양한 얼굴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년 정치인이나 중년 정치에 대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숫자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 정치인에 대해서는 예컨대 박혜민의 정치, 박혜민이 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지만, 청년 정치인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은 청년 정치인 다운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맴돌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청년 정치의 맥락을 가지고, 더 다양한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로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젊다고 다야?', 내가 본 젊은 정치인들 중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많고,
내가 기대하는 청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젊다고 해결되는 거 맞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바라보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 젊은 정치인들은 더 등장하기 어려운 걸까를 고민해보았어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정치를 직업으로 결심했을 때 어떤 직업적 레퍼런스로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당 내에 청년 정치인 내지는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합니다. 피선

거권 연령이나, 정당 참여 연령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좋은 의사결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정당 내에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성 정치인에게 줄을 선다거나 의지하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정당 내에서 공천받기 위해서는 실력과 세력의 증명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세력이라 하는 것은 기성 정치 안에서 훨씬 시간과 자원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은 그 기회와 자원을 돌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의 90%가 가깝게 거대 양당에서 당선이 됐는데, 두 당에는 대부분 이제 공천권, 즉 누가 출마를 할 것인지 정당에서 추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지역 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의 수장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잘 실력과 체력을 쌓아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당협 위원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뉴웨이즈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주체가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좋은 의사결정권자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개인기로만 돌파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뉴웨이즈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는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마지막 투표용지의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결정되는 과정, 후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캐스팅 매니저로서, 내년 지방선거라는 경기장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자 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역 180여 명의 선수분들, 내년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계시고, 함께 실력을 쌓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역구별 유권자인 캐스팅 매니저분들과 연결을 해서 지역구별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과 그 사람의 정치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세력이 되고 동시에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료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웨이즈 #젊치인 #정치인 #지방의회

우리에겐 더 많은 젊치인이 필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는 뽑고 싶은 사람, 말 통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더 다양한 얼굴들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뉴웨이즈를 검색하셔서 캐스팅 매니저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 내년 출마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수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늘 지켜봐 주시고 내년 지방선거의 풍경을 함께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Filibuster

#청년정치인

#청년자살

#디지털성범죄

서난이

전북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에서 살고 있는 서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주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청년 관련 공간들을 만드는 정책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청년 건강검진을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전국화된 사업으로 돼서 이제 모든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큰 맥락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 자살률 문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 마지막으로는 청년 참정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갈수록 증가하는 청년 자살은 정신적 탈진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회원국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인 11.2명에 비해 2.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올해나 코로나 시기 이후에 1년 사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청년의 자살률이 1위를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10대 자살률은 19.2명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였으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5.5%가 증가하여 그 폭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특히 이 20대 청년층의 자살

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가장 삶이 빛나고 의욕적이고 열정을 불태워야 할 시기에, 스스로의 인생을 낭떨어지로 향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지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전주 청년들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실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고민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다라는 보기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굉장히 고립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상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자살 문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케어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우울감이나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욕,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급격한 청년 자살률로 이어지는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청년들의 목을 조이는 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을 얘기하는 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부모님의 재산이나 능력으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많은 청년들은 한 번의 도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인가. 청년들이 열정과 도전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코

청년들이 굉장히 고립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상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도시의 원동력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탈진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행복한 국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의 자살 얘기에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지만요. 지금도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청년 건강검진에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지만, 그 질문으로는 청년들의 상태를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을 할 청년들은 대부분 이미 중증입니다. 초기, 경증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경제적 자립이나 법률, 의료 지원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청년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고 삶의 질이 나아져 주거 문제, 자살 문제, 건강, 교육,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청년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악랄해지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건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성범죄가 훨씬 고도화되고 예방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N번방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특정인이 지속적 착취를 당하고 해당 사이트는 유료화로 범죄 수익을 창출하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조직적인 기법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 하면 가장 먼저 몰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아니면 어떤 애인과의 관계 안에서 영상을 유출한다던가. 하지만 그것 외에도 불법 신체 촬영이나 비동의 상태에서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것, 단톡방에 유통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들,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 소위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형태, 또 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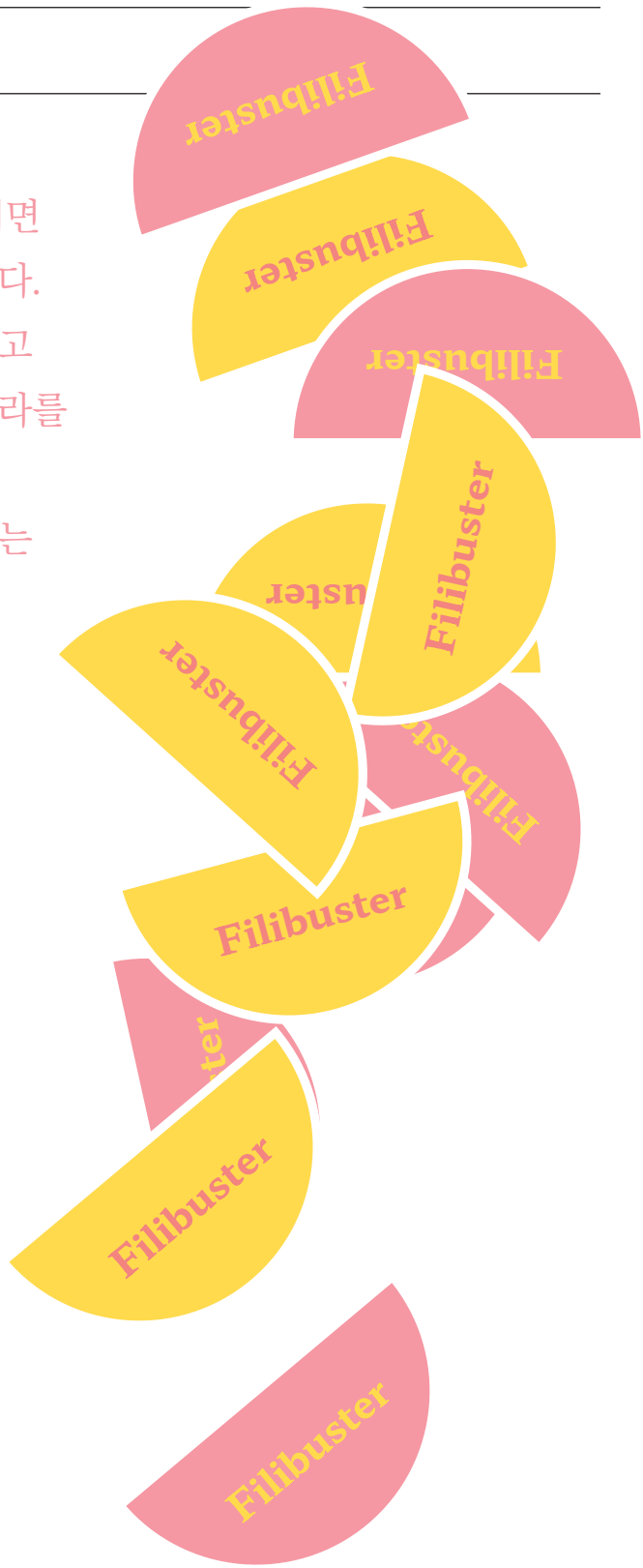
인상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발언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적 괴롭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 범죄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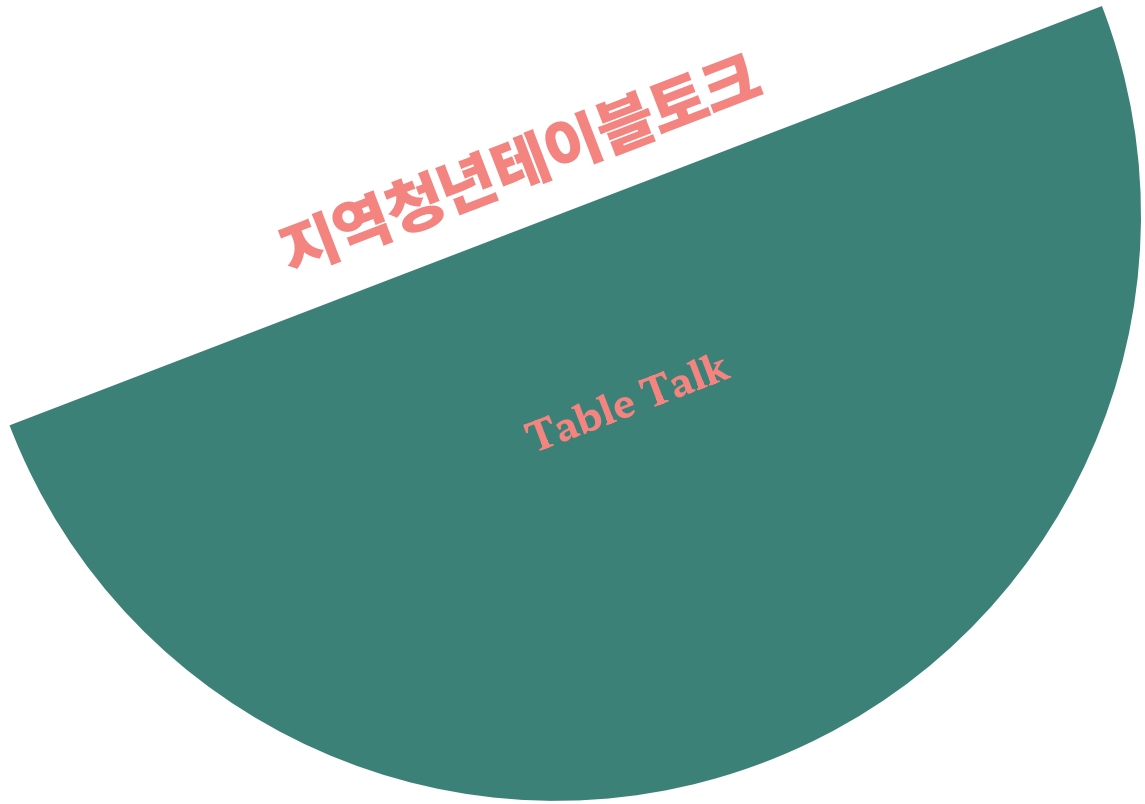
청소년, 청년, 누구나 할 것 없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예컨대 초등학생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피해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란 사진을 문에 트라우마를 남기는 방법 등 그 수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포르노처럼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편집하고 합성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들이 많은데요.

이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이 불법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안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켜주어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정치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더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는 지금,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술을 사는 행위 그리고 결혼을 하는 행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행위 모두가 가능하지만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회에 진출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년의 당연한 권리인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이 18세로 모두 동일하게 맞춰져야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필리버스터의 내용들이 의회에 담겨지고, 실제 언론에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힘 있고 호소력 있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서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는 지금,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술을 사는 행위 그리고
결혼을 하는 행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행위 모두가
가능하지만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지역청년테이블토크
Table Talk

지역청년 테이블토크

Table Talk

테이블토크가 끝나갈 무렵, 참여자들이 아쉬워했다.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는데 편하게 이야기나눌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는 기회가 없었다고. 이러한 문턱 낮고 편안하게, 그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했다. 지역청년에 관한 서로의 고민을 편하게 나누는 자리에, 경남 청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의 청년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온라인(ZOOM)

테이블 구성

지역간 불평등 해소
김화연 퍼실리테이터

지역청년과 중앙담론의 괴리
김선기 퍼실리테이터

지역청년에 대한 사회의 태도
김지수 퍼실리테이터

지역 청년 내 다양성
정보영 퍼실리테이터

지역간 불평등 해소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비해 지역은 교통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과 지역 간 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같은 경남 안에서도 창원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제가 사는 작은 지역은 창원이나 부산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이 많기는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진행이 늘어서 지역 이동 없이 교육을 듣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청년과 중앙담론의 괴리

지역에도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있지만 아직까지 문턱이 높아서 활용하기 쉽지 않죠. 지역에서도 청년의 마음건강 담론이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통계의 수립과 측정이 수도권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중앙, 서울, 외국의 정책사례를 그대로 복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청년에게도 딱맞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이 청년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청년에 대한 사회의 태도

지역청년이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중앙/수도권에서는 지역청년을 하나로 묶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지역 청년의 다양한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청년은 흔히 '지역엔 청년이 없다'거나, '지역에 남은 청년들은 의지가 없고 무능하다'라는 서로 다른 시선 사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표현 모두 다 지역 청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역청년을 하나로 묶어 마음대로 재단하고, 편의에 따라 활용하는 발언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역 청년 내 다양성

지역에도 다양한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 살면서 1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초보 창업가에게 기초 세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에 좋은 청년정책이 이미 많지만, 좀더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려고 보니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문턱이 좀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괜찮을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청년선언문

Manifesto

지역청년 선언문

Manifesto

지역청년선언문

우리는 지역청년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년으로서 다음과 같이 함께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와 담론, 정책이 다시 쓰여야 함을 선언합니다.

출신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더 큰 대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갖게 되는 소외의 감각은 오늘날 청년의 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쓰도록 하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의 청년담론은 소위 '서울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서울로 상경한 우수 인재' 혹은 '서울로부터 이주해 온 유입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보다 이들을 먼저 고려해 왔던 관행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지방소멸을 진정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역청년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면적인 생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둘,
우리는 지역청년이 활력 있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지역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급여와 복지, 고용안정성, 노동강도, 워라밸, 안전과 위험, 직장문화 등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적당한 질의 일자리'입니다. 지역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지역청년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청년도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사회 비전에 알맞은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을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차별과 인식 차별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방대가 지역청년들의 창발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교육 재정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방대의 자치권 발휘를 위해 책임과 권한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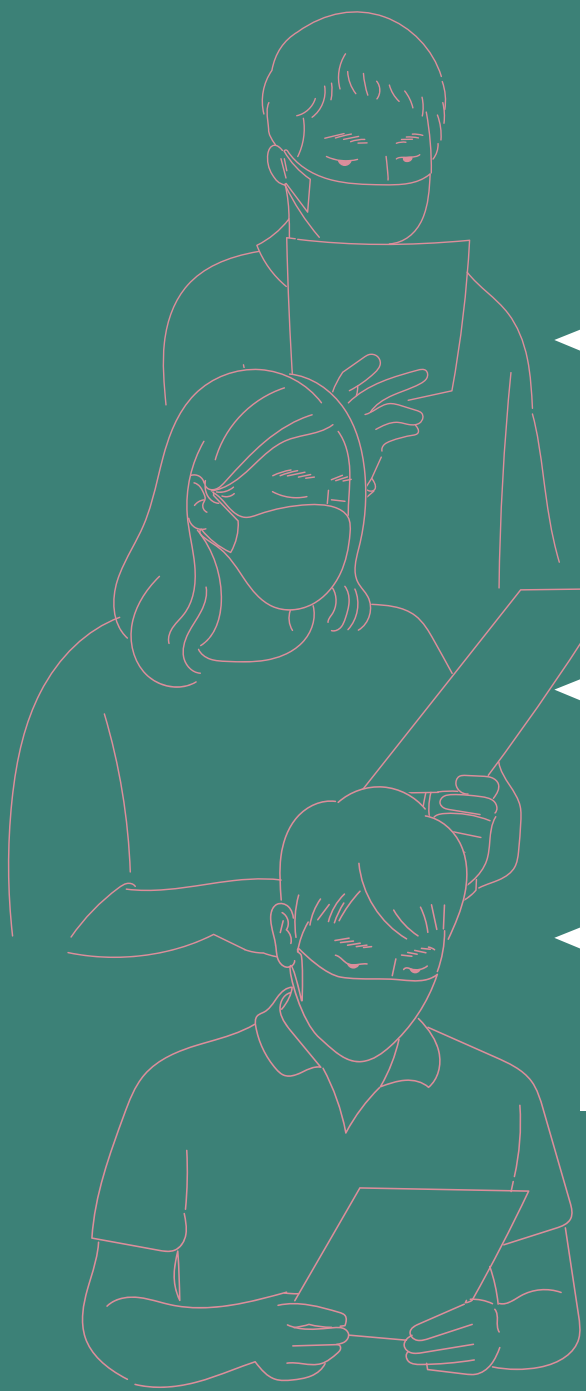
의료 및 보육 인프라, 문화 향유, 도전 기회 등에 있어서 서울 청년과 지역 청년, 혹은 도시 청년과 농촌 청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
우리는 지역청년의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똑바로 마주하며,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지역청년이 서울청년과의 비교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정의되는 경향, 또 그럼으로써 서울청년의 반대 항으로 전형화되는 경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음을 지역사회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비정규직 청년, 5인미만사업장 근로청년, 제조업 종사 청년, 자영업자 청년, 농수산업 종사 청년, 다문화 청년, 장애 청년, 1인가구 및 기혼 청년, 비진학 청년, 탈가정 청년, NEET 청년, 영케어러 청년, 성소수자 청년 등을 지역청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포괄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 평화, 평등, 참여와 거버넌스 등 지역청년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의견을 지역사회가 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
우리는 지역청년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닌 선언하는 주체가 되는 크고 작은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함을 선언합니다.

지역청년은 누군가 그렇게 보고 있듯 '탈출하지 못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지역청년이 지역사회를 향해 선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지역청년을 대표하는 다양한 젊은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도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져야 합니다.

지역청년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우리 지역 청년에게 자생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그 지역을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머무르는 선택이
현실의 벽을 마주하여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강요된 선택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10.03

2021년 10월 3일,
지역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경남청년공론의장 지역청년필리버스터 발언자 일동

Manifesto
Filibuster
Table Talk
Forum

경남청년주간
공론의 장

지역청년을 말하다

경남청년공론의장 “지역청년을 말하다”

발행 2021년 10월 31일

기획 |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사)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글 | 권수빈 권명아 곽영신 양승훈
이주열 박홍열 안태형 조인우 정수진 최영철
김빈아 김영철 심아준 박서재 강보배 김다정
최종환 김설 김민성 천현우 박혜민 서난이
편집 | 김선기 정보영
디자인 | 암튼
제작 | 한울타리
발행처 | 경상남도
수행기관 | (사)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